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정신역학이론의 의미차감(Subduction)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idée « Subduction » de la psychomécanique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소 정

정신역학이론의
의미차감(Subduction)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idée « Subduction » de la psychomécanique

지도교수 박 동 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김 소 정

김소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장 승 일 (인)

부 위 원 장 심 봉 섭 (인)

위 원 박 동 열 (인)

국문초록

정신역학이론의 의미차감(Subduction)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프랑스 언어학자 Gustave Guillaume의 정신역학이론에서 소개된 의미차감(Subuction)개념을 연구하고, 이 개념이 언어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차감은 단어의 탈의미화(désémantisation) 또는 탈질료화(dématérialisation) 작용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차감의 작용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단어들 간에 개념적 연대를 결정지어주는 외적 혹은 개방적 의미차감(subduction externe ou exotérique)이다. 예를 들어 다른 동사들보다 개념적으로 선행한다고 할 수 있는 동사 être나 avoir는 최대의 의미차감성(subductivité)을 가진다. 둘째로 의미차감 작용이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내적 혹은 비의적 의미차감(subduction interne ou ésotérique)이라 한다. 단어는 내적 의미차감 작용을 통해 가득 차있던 최초의 의미가 빠져나감에 따라 의미차감의 정도가 커지며,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차감 작용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언어현상에서 적용되는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Gustave Guillaume의 정신역학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개념들인 '잠재언어'와 '담화', 근원적 이원장력, 작용시간,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단어체계론, '걸림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의미차감' 개념을 정의하고, 어떤 원리로 이 개념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동사들보다 개념적으로 선재(先在)하는 프랑스어 동사 être와 avoir에서 일어나는 의미차감

작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반 ‘어휘동사’가 ‘조동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의미차감’ 개념이 다양한 언어형태와 다의어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언어형태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그 첫째로 단어 NE의 경우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최초의 상태에서 의미차감을 통해 부정의 의미가 모두 빠져나간 허사의 NE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로 전치사 DE가 의미차감 작용으로 전치사성을 상실하고 ‘역전소(inverseur)’로 전환되는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동사 ENTENDRE를 분석함으로써 다의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의미차감’으로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요약·정리하는 한편, 다양한 분석사례의 연구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주요어: 정신역학이론, 의미차감, 조동사화, 탈의미화, 다의현상.
학 번: 2010-23568

목 차

Ⅰ.서론 ····· 1

Ⅱ. 정신역학이론의 원리 ····· 5
2.1. 잠재언어(langue)와 담화(discours) ····· 5
2.2.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 ····· 9
2.3. 작용시간(temps opératif) ····· 10
2.4.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와 실현의미(signifié d'effet) ····· 15
2.5. 단어체계론(systématique du mot) ····· 18
2.6. 걸림관계(incidence) ····· 22

Ⅲ. 의미차감의 정의 ····· 27
3.1. 의미차감의 구분 ····· 27
3.1.1. 외적 의미차감 ····· 28
3.1.2. 내적 의미차감 ····· 30
3.2. 동사 avoir와 être의 의미차감 ····· 31
3.2.1. avoir의 의미차감 ····· 32
3.2.2. être의 의미차감 ····· 37

Ⅳ. 의미차감의 적용 ····· 41
4.1. 의미차감과 NE ····· 41
4.1.1. NE와 부정 ····· 41
4.1.2. NE의 용법 ····· 45
4.1.3. NE와 의미차감 ····· 51

4.2. 의미차감과 DE ····· 56
4.2.1. 전치사로서의 DE ····· 57
4.2.2. 탈(脫)전치사로서의 DE ····· 60
4.2.3. DE와 의미차감 ····· 62
4.3. 의미차감과 ENTENDRE ····· 68
4.3.1. 다의성과 다의어 ····· 69
4.3.2. ENTENDRE의 다의현상 ····· 72
4.3.3. ENTENDRE와 의미차감 ····· 78

Ⅴ. 결론 ····· 83

참고문헌(Bibliographie) ····· 85

불문요약(Résumé) ····· 91

Ⅰ. 서론

Gustave Guillaume(1974:31)은 자신의 강의에서 “언어학은 우리의 사고가 그 자체 안에 고유한 과정을 분명히 파악하기에 이르는 수단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주는 학문”[1]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언어학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그의 이론적 분석 도구 중의 하나인 ‘의미차감(subduction)’ 개념을 고찰하려는 본 연구에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 그의 명제는 언어능력은 사고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Guillaume은 언어구조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일된 견해를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활동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기존 문법에서 즐겨 다루는 현상들, 예를 들어 인칭, 수, 시제, 상, 태, 서법, 품사 등을 의미론적 관점 혹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언어현상을 사고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결과로 전제한다. 둘째, 사고란 본질적으로 단 한 순간도 정지되지 않는 유동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위 명제에 따르면 사고는 언제나 흐르는 과정 혹은 구조가 있다. 그리고 사고의 과정은 어떻게든 흐르면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과정의 역동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이 과정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흔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정신적 흔적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며, 주요 흔적들은 말하는 주체가 원할 때마다 되

1) “La linguistique [...] est celle aussi qui introduit le plus avant à la connaissance des moyens avec lesquels notre pensée parvient en elle-même à la saisie claire de ses propres démarches.”

풀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의 과정이 되풀이되면 될수록 그 흔적들은 점점 고착화되고 급기야 기호로 상징화되어 정신 속에 저장된다. 달리 말해 이는 역으로 기호를 잘 관찰하면 사고의 과정 혹은 구조를 역추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호의 관찰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사고의 과정으로서 '의미차감'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Guillaume은 이 사고의 과정을 분명히 파악하기에 이르게 하는 수단, 즉 그의 용어로 '잠재언어(langue)'를 언어학의 기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인간의 오감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인지영역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잠재언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인지적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보편적 개념화 작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미차감'이 탈의미화라는 인지작용과 더불어 '잠재언어' 층위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의미차감'이라는 메커니즘은 Guillaume의 언어분석 도구 중에서 의미적 변이와 형태적 변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도구이다. 이 개념은 Guillaume의 강의 초기부터 출현할 정도로 그에게는 중요한 분석도구였다. 그런데 '의미차감' 개념은 정신역학이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신역학이론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Guillaume 자신도 오직 동사 영역에만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그쳤다. 오히려 모든 서술적 품사와 비서술적 품사에 '의미차감' 개념을 적용하여 어떻게 '의미차감' 현상이 이들 속에서도 작동되는가를 밝힌 사람은 Gerard Moignet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의 정신역학이론가들이었다. 국내에서도 정신역학이론을 연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는데, '의미차감' 개념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떤 기호가 통시적, 공시적으로 탈의미화 작용을 겪

는 것은 실제 언어현상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차감' 개념을 주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몇 가지 언어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실 말하는 주체(sujet parlant)가 하나의 기호가 가진 기의(signifié)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범주화하는 능력, 게슈탈트를 일으키는 능력,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 비교하는 능력 등과 같은 인지능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차감'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한 보편적인 언어현상 중 하나를 이해하는 일이 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신역학이론의 적지 않은 언어분석의 기저에는 '의미차감' 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정신역학이론과 그에 따른 언어분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의미차감'은 정신역학이론의 관점에서 언어기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속성인 다의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좋은 이론적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연구주제로 다루는 것은 현대의미론의 한 가지 중요한 연구주제를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서론에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Guillaume의 정신역학이론 중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잠재언어(langue)'와 '담화(discours)',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 '작용시간(temps opératif)',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와 실현의미(signifié d'effet)'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는 '의미차감' 개념과 그 개념을 통한 언어분석과 관련되는 '단어체계론(systématique du mot)'과 '걸림관계(incidence)'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의미차감’ 개념의 정의와 원리를 명확히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Guillaume이 ‘의미차감’ 개념을 도출한 프랑스어 조동사 ‘avoir’와 ‘être’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Ⅳ장은 의미차감 현상이 구체적인 언어형태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서술적 품사’에 속한 형태 NE와 DE에서 일어나는 ‘의미차감’ 작용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술적 품사’에 속하는 동사 ENTENDRE에서 나타나는 ‘의미차감’ 현상을 통해 이 개념이 어휘의 다의현상에 대한 분석도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Ⅱ. 정신역학이론의 원리

프랑스 언어학자인 Gustave Guillaume에서 비롯된 정신역학이론은 그가 언어행위에 대해 일생을 걸쳐 강의한 내용이 담긴 자필 강의록 원고를 근거로 형성된 독창적인 프랑스 현대 언어이론[2]이다. 정신역학이론에서 언어체계란 곧 사고체계이고, 이 사고체계를 지배하는 원리에 의해서 언어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Guillaume의 언어이론은 정신역학이론(psychomécanique)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인간의 사고 작용을 언어체계를 구성하는 토대로 보고, 자신의 언어학 연구목표를 인간의 정신작용 원리와 그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언어체계를 밝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정신역학이론의 기본적 원리들 중 우리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1. 언어의 두 존재 양식, 잠재언어(langue)와 담화(discours)

우리가 어떤 아주 낯선 국가의 언어를 모른 채, 그 나라를 여행한다는 가정을 해보자. 이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몸짓, 소리, 그림 등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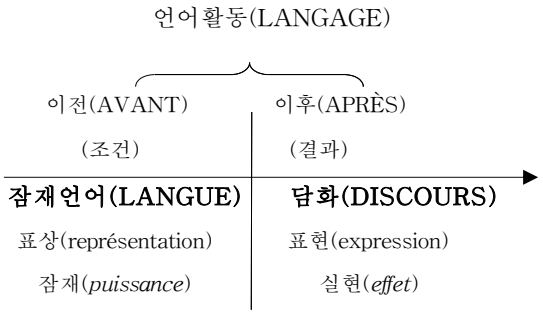
2) Guillaume의 언어이론은 구체적으로 정신작용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정신역학(psyco-mécanique) 분야와 언어체계를 연구하는 정신체계학(psycho-systématique) 분야, 그리고 잠재언어와 담화 사이의 매개소인 언어기호를 연구하는 정신기호학(psycho-sémiologie)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국가의 언어를 안다고 한다면 불편하게 이러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바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자신 속에 영속적으로 내재된 일종의 지식 체계인 잠재적 표현수단(moyens puissanciels)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어느 순간에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 잠재적 표현수단이 바로 언어능력(compétence linguistique)이다.[3] 이 표현수단을 Saussure를 비롯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잠재언어(langue)'라는 기술적 용어로 명명했다. 특히 Saussure(1986:25)는 '잠재언어'를 "언어활동 능력의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개개인에게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사회집단에 의해 채택된 필요한 규약의 총체"로 정의하였고, 이와 함께 제시한 개념으로 '빠롤(parole)'을 "음성과 의미의 측면에서 각 개인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가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언어학을 내세우면서 제기한 첫 질문은 "전체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언어학의 대상은 무엇인가?(Quel est l'objet à la fois intégral et concret de la linguistique?)"였는데, 그는 이 대상을 '잠재언어'로 보았고, 이를 언어학의 기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Guillaume은 『일반 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Saussure의 '잠재언어/빠롤'이란 이분법을 불완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Guillaume은 인간의 언어활동(langage)을 연속체로서 재해석 했는데, '잠재언어'는 잠재적 상태로 우리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빠롤'은 실제 상태로 우리 안에서 상황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언어 연구에서 언어가 변화되는

3) Le terme langue, dans notre terminologie est(...) un terme étroit réservé aux seuls moyens d'expressions dont le sujet parlant, même silencieux, a de par leur institution en lui(plus ou moins différemment systématisée selon les idiomes, les époques et l'état de civilisation) la disposition permanente.(Guillaume, 1974:68)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언어활동 속에 내포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시간요소를 고려하여 언어활동을 잠재태(puissance)에서 실현태(effet)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빠롤'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빠롤' 자체가 두 가지 존재 양태, 즉 음운적 차원인 '잠재적 빠롤(parole puissancielle)'과 음성적 차원인 '실현적 빠롤(parole effective)'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잠재태'와 '실현태'라는 이분법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는 '빠롤' 대신에, Guillaume은 언어의 '실현태' 차원의 존재양상을 명명하기 위해 다음의 도표가 보여주듯이 '담화(discours)'란 용어를 선택하였다.(Monneret, 2013:14)[4]



[도표1]

위 도표는 정신역학이론에서 모든 언어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활동을 '잠재언어'와 '담화'의 두 층위로 나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잠재언어'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한 화자들이 인

4) "Or le terme 'parole' n'est pas le plus adéquat pour exprimer le passage du plan puissanciel de la langue au plan de l'effet. Car il existe deux modes d'existence de la parole: une parole puissancielle(niveau phonologique) et une parole effective(niveau phonétique). Puisque la dichotomie de la puissance et de l'effet opère un clivage au sein de la parole elle-même, il est préférable d'employer le terme discours pour désigner le mode d'existence effectif du langage."

지작용을 통해 세상을 구조화하여 이해한 거대한 '표상체계(système de représentation)'이며, 구체적으로는 이 표상체계 안에서 서로 서로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하위체계들을 갖춘 '체계들의 체계(système des systèmes)'이다.[5] 그리고 바로 이 '표상체계'를 통해 발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많은 발화체(énoncé), 즉 '담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정신역학이론의 관점에서 언어표현이란 오직 이 표상체계로부터 출발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시제의 표현(expression du temps)은 '잠재언어' 속에 영원히 잠재되어 있는 시제의 표상(représentation du temps)으로부터 출발하고, 구체적인 음성학적 소리는 '잠재언어' 층위의 음운론적 표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Guillaume(1973:160-161)은 '잠재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담화'의 전제조건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주체(le sujet pensant)'라 했으며, 잠재언어를 '사유 가능한 것(pensable)', 담화는 '사유된 것(pens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사유 가능한 것'은 모든 잠재적인 '사유된 것'을 가리키며,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든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6]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개념의 '사유 가능한 것'은 실체로 드러나는 '사유된 것'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 연구자의 역할은 실제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언어표현 또는 발화체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잠재언어'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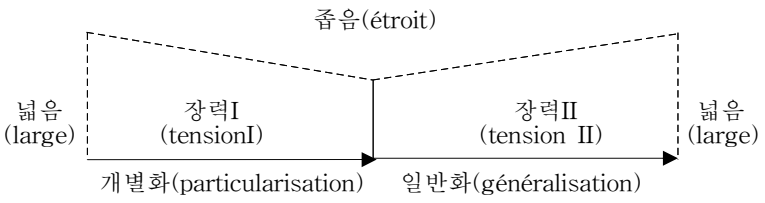
---

5) "La langue, toute langue, est dans son ensemble un vast systèmes reliés entre eux par des rapports de dépendance systématique qui font de leur assemblage un tout." (Guillaume, [1919]1975:176)

6) "Le pensable, c'est toute la pensée en puissance. C'est une intégrale potentielle. Le pensable, anticipativement, doit satisfaire à toute pensée qu'on voudrait en effet produire." (Guillaume, 1973:161)

2.2.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

Guillaume(1973:200)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사고는 사고의 초월작용(transcendance)을 통해 무한히 넓은 것을 지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고의 내재작용(immanence)으로 무한히 좁은 것을 지향할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고의 운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만약 이 두 장력이 없다면 인간의 사고는 어떤 효력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7] Guillaume은 이러한 인간정신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mécanisme mental)을 이원 모델로 표현된 '근원적 이원장력(tenseur binaire radical)'이라고 불렀다. 이는 인간정신의 근원적 움직임을 두 개의 사고의 움직임, 즉 두 개의 장력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두 장력은 각각 넓음(보편성)에서 좁음(특수성)으로 나아가는 '개별화 작용(particularisation)'과 좁음에서 넓음으로 나아가는 '일반화 작용(généralisation)'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 '근원적 이원장력'은 Guillaume의 모든 언어현상, 예를 들어 관사체계, 시제체계, 수체계, 단어체계 등을 분석하는 토대가 되며, Joly(1990:50)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도표2]

7) "(...) On partira, à cet effet, de l'idée, évidemment fondée, que la pensée tient sa puissance de ce qu'elle est habile à particulariser et à généraliser. Privée de cette double aptitude-qui constitue un entier(un entier intérieurement binaire)-la pensée humaine serait sans force et inopérante." (Guillaume, 197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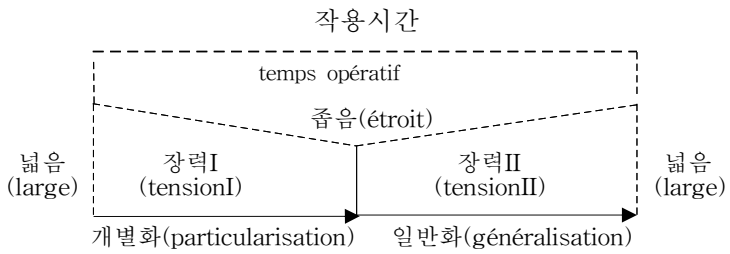
한편 [도표2]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 표현된 화살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원장력의 개별화와 일반화 운동은 결코 출발점으로 회귀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언어의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정신운동은 일반성이나 개별성에서부터 출발하여 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비회귀성 법칙'이다.[8] 이때 '비회귀성'이란 개념은 공간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의 개념으로, [도표2]의 시작과 끝이 모두 '넓음'이지만, 시간선상으로 처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의 넓음과 마지막의 넓음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또한, 이 이원장력은 인간사고 운동의 속성상 '비회귀성' 뿐 아니라 '단절성'을 절대 지닐 수 없다.(Guillaume, 1973:200-201)[9]

2.3. 작용시간 (temps opératif)

앞서 [도표1]에 나타난 '잠재언어/담화', '표상/표현', 더 일반적으로 '잠재태/실현태'라는 구분은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지닌 것이며, 이 연속적 속성은 필연적으로 '시간'이란 요소가 개입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 시간은 모든 언어 작용 속에서 혹은 언어활동에 기인한 모든 언어현상 속에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용적(opératif)'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정신역학이론에서 작용시간은 언어활동을

8) Guillaume(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p.99-100.
9) "Le mécanisme de puissance de la pensée, c'est l'addition sans récurrence, sans retour en arrière, de deux tension I fermante, progressant du large à l'étroit, et une tension II ouvrante ad infinitum, progressante de l'étroit au large."

사고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사고활동은 매우 역동적이며 운동성을 갖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동반한다는 것이다.(Valin, 1955:26) 이는 마치 걷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언어활동으로서 사고하는 데에도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0] 다시 말해서 작용시간은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언어현상에 구체적으로 개입된 시간이며, 언어를 생성하는 사고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따라서 정신역학이론의 모든 언어분석 도식에는 근원적으로 이 시간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사고 작용에 내재된 작용시간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공간을 이용하여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을 통해 다음의 도표와 같이 가시화시킬 수 있다.[11]



[도표3]

그러나 작용시간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는 언어학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한다. 아예 작용시간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을 제외한다면, 언어학자들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입장은 Roche Valin의 경우로 작용시간을 사고의 과정에서

10) "La pensée en action de langage exige réellement du temps. Il y a là un principe de grande portée en linguistique psychologique et en linguistique générale." (Guillaume, 1929:8)
11) Joly(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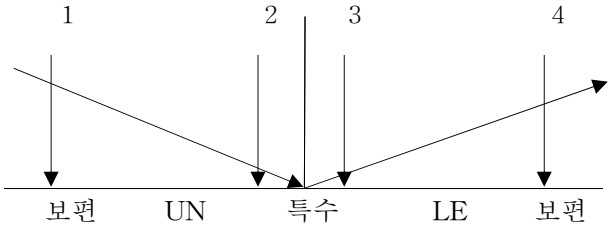
실제로 발생되는 시간이 아닌 다양한 언어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가정 혹은 순서적 배열로 본다. 두 번째 입장의 Marcel Toussaint과 Philippe Monneret는 작용시간을 뇌 피질 부위의 활동과 동시에 발생되는 언어활동을 위한 사고가 실제로 부여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Guillaume(1929:8)은 초기부터 작용시간의 실체를 긍정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극도로 짧은 정신작용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신 속에서 시간 심상이 형성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 시간은 명백히 매우 짧지만 무한히 짧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적이다."[12]

한편, 작용시간이라는 개념은 Guillaume의 언어학을 역동적 언어학(linguistique dynamique) 혹은 위치언어학(linguistique positionnelle)으로 만든다. 말하자면 작용시간의 흐름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정신이 시간의 흐름을 단절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의미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Moignet(1981:133)는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프랑스어 관사체계를 설명하였는데, 그는 작용시간 선상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포착단계를 구분하는 다음의 도표를 예로 들어 관사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

12) "Pour être une opération mentale extrêmement brève, la formation de l'image-temps dans l'esprit n'en demande pas moins un temps, très court sans doute, mais non pas infiniment court, et par conséquent réel."



[도표4]

[도표4]에서 부정관사 UN은 근원적으로 특수성으로 향하는 개별화운동을, 정관사 LE는 보편성으로 향하는 일반화운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프랑스어의 관사는 4개의 지점에서 포착 가능하다. 다음은 각 지점에서 포착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사용된 예문이다.

(1) Un enfant est toujours l'ouvrage de sa mère.
(2) Un agneau se désaltérait.
(3) Où est le stylo?
(4) L'agneau est le symbole de la douceur.

예문(1)에서 UN의 의미는 개별화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된 첫 번째 포착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UN은 명사에 총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un enfant'은 <한 명의 아이와 어떤 아이> 혹은 <한 명의 아이와 모든 아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문(1)은 <아이란 항상 어머니의 작품이다>라고 해석된다. 이 때 부정관사 un은 일반화된 대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예문(2)에서 UN은 개별화 운동의 마지막 지점 위치한 포착 2에 해당한다. 이 때 부정관사 UN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의 의미를 부여하며, <(한 마리의) 어떤 양이 갈증을 풀고 있었다>로 해석된다. 즉, 이 때 '양'은 개별화운동의 끝 지점에서

포착되어 특정화된 양을 의미한다.

한편 포착 3과 포착 4 지점의 정관사 LE는 부정관사 UN의 선행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용적(anaphorique) 의미를 함의한다. 즉, 특수성의 위치인 포착 3에 해당하는 경우인 예문(3)에서 LE는 '펜'의 존재를 환기시키면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특정적 펜'을 지시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 펜은 어디 있어?>로 해석되며, 이 때 LE는 지시형용사(ce)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운동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포착 4는 예문(4)의 LE와 같은 의미를 만든다. 여기서 정관사 LE는 명사류의 종 전체를 대표하는 총괄적, 일반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은 부드러움의 상징이다>로 해석된다. 포착 4의 정관사 LE는 포착 1의 부정관사와 동일하게 보편성(총칭성)을 나타내지만,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완벽히 배제된 절대적인 보편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지점에서 포착한 관사의 체계가 두 관사의 모든 용법을 완전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포착 1과 포착 2, 포착 3과 포착 4 사이에 중간포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포착 3과 포착 4 사이의 포착이 가능한데, 이 때 관사 LE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de notre temps'과 같은 수식구와 함께 명사에 한정의 의미를 부여하며, 총칭성의 의미는 그만큼 줄어든다.

(5) L'enfant de notre temps est souvent trop gâté.

예문(5)는 <요즘 아이들은 때론 너무 버릇없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때 LE는 예문(3)보다는 총칭성이 늘어나고, 예문(4)보다는

총칭성이 줄어든 의미효과를 나타낸다.

2.4. 잠재의미(signifié de puissance)와 실현의미(signifié d'effet)

2.1에서 빠롤이 음운적 차원인 '잠재적 빠롤(parole puissancielle)'과 음성적 차원인 '실현적 빠롤(parole effective)'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는 기표(signifiant)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빠롤'은 '잠재적 기표(signifiants de puissance)'에 해당되고, '실현적 빠롤'은 '실현적 기표(signifiants d'effet)'에 해당된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Guillaume은 기의(signifié)를 '잠재언어'에 속하는 '잠재적 기의(signifié de puissance)' 혹은 '잠재의미'와 '담화'에 속하는 '실현적 기의(signifié d'effet)' 혹은 '실현의미'로 구분하였다.[13] 그리고 이때 기호(singe)가 다음 도식처럼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Guillaume, 1984:246)

잠재의미	→	기호	→	실현의미
(signifié de puissance)		(signe)		(signifié d'effet)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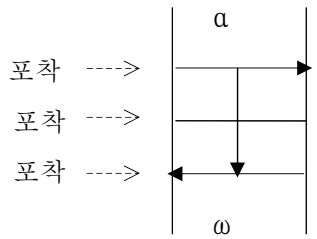
13) "Une distinction non moins importante [...] est celle du signifié de puissance attaché en permanence dans la langue au signe (qui en devient un signifiant) et du signifié d'effet dont le signe se charge momentanément, par l'emploi qui en est fait, dans le discours." Guillaume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Saussure식 용어를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그는 '기호'로 이해된 것을 '기표'로, '기표'로 불리던 것을 '기호'로 명명한다.

이와 같이 ‘잠재의미’는 물리적 형태를 띠지 않는 사고의 구성물이며, ‘실현의미’로 전환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기호와 결합한다. 그런데 사고 구성물로서 ‘잠재의미’는 본질상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실현의미’의 다양성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의미의 단일성(unité)이며, 다른 하나는 이 단일성을 표현하는 운동적 특성(caractère cinétique)이다. 일반적으로 ‘잠재의미’는 방향성을 가진 사고운동인데, 인간정신은 ‘실현의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 운동의 특정 지점들을 포착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미’인 동적인 전개과정 중에서 어떤 순간에서 인간정신이 중단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실현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실현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현재시제를 살펴보자.(Monneret, 2003:72)

(6) J’arrive dans un instant.
(7) Cette année, il passe la maîtrise et l’an prochain, il se présente à l’agrégation.
(8) Si tu viens me voir, dis le moi.
(9) La bombe explose.
(10) Actuellement, Pierre boit une bière au café.
(11) Chaque jour, Pierre boit une bière au café.
(12) Pierre qui roule n’amasse pas mousse.
(13) Il sort d’ici.

위의 예문(6)과 (7)은 <나는 곧 도착할 것이다>와 <올해 그는 석사과정을 통과하고, 내년에 교수자격 시험에 응시할 것이다>로 해석되며, 근접미래 혹은 먼 미래의 사건을 표현한다. (8)은 <만약 네가 나를 보러 온다면, 내게 말해줘>로 해석되는데, 발화순간 이후에 가능한 사건을 표현한 것으로 양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음 (9)

는 <폭탄이 (방금) 터졌다>로 완료동사(verbe perfectif)의 현재이며, (10)은 <현재 Pierre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신다>로 미완료동사(verbe imperfectif)의 현재이다. 그리고 (11)은 <매일 Pierre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신다>로 해석되는 반복상(aspect itératif)을 가진 현재이고, (12)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으로, 이 때 현재의미는 반복적 현재가 최대 확장되어 초월적 시간(omnitemporel)으로서의 현재를 나타낸다. <그는 (막) 여기서 나갔다>로 해석되는 (13)은 과거의 부분으로 제한된 현재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현재시제의 다양한 '실현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정신역학이론은 현재시제의 '잠재의미'를 현재 형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과거 부분(parcelle de passé)과 미래부분(parcelle de futur)의 역학적 구성으로 파악했다. Moignet(1981: 75)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프랑스어 현재시제의 '잠재의미'를 표현했다.



[도식2]

위 도식에서 α는 미래부분의 시간인자(chronotype)를 표현하고, ω는 과거부분의 시간인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도식은 현재시제의 '잠재의미'가 사고과정에서 끝없이 α에서 ω로의 전환하는 과정을 표상한 것이다. 즉 현재의 정신적 이미지를 뜻하는 현재시제는 위치적으로는 시대를 구분하고, 구성상으로는 시제발생 체계의 단계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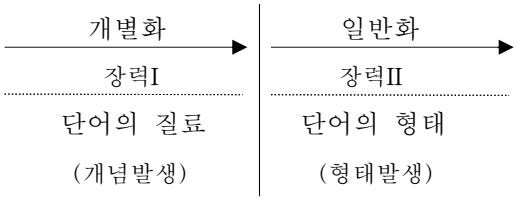
타나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층위의 시제를 구분해주기 때문에 모든 동사 구조의 원칙을 내포한다. 이때 예문(6-8)은 인간의 정신이 초기에서 포착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α만이 포착되고 ω 부분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예문(9-12)는 α와 ω의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두 부분이 서로 공존하는 중간 단계의 포착이다. 그런데, (11)과 (12)가 비록 현실의 상태를 벗어나 다소 잠재적 상태로서 반복사건과 시간초월 사건을 표현하지만, 본질적으로 α와 ω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은 늦은 포착의 예로서, (13)에는 α 부분은 없고 오직 ω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소위 '역사적 현재'라고 불리는 현재의 용법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역학이론에서는 다양한 '실현의미'를 사고의 역동적 운동으로 구성된 단일한 '잠재의미'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2.5 단어체계론(systématique du mot)

모든 단어는 크게 형식(forme)과 형식을 채우는 질료(matière), 즉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Guillaume(1997:188)[14]은 프랑스어 단어형성에 관하여 단어의 형식과 질료의 관계를 연속성을 지닌 이원장력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질료는 '특수'로 향하는 사고작용의 첫 번째 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형식은 '보편'으로 향하는 사고 작용의 두 번째 운동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14) "(...) c'est que le rapport de forme à matière est un rapport d'ordre, de consécution, sans plus. La matière est livrée par le premier mouvement de l'esprit pour s'éloigner de l'une de ses limites infranchissables, à savoir: le singulier ou l'universel; et la forme, par le second mouvement de l'esprit pour revenir à sa position de départ."

André Joly(1990:53)는 이러한 Guillaume의 단어체계를 다음의 도표로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도표5]

위 도표는 개별화 운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장력에 의해 '개념발생(idéogénèse)'이 일어나고, 뒤이어 일반화 운동을 일으키는 두 번째 장력에 의해 '형태발생(morphogénèse)'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어형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념발생(idéogénèse)

개별화 작용을 나타내는 장력I은 '식별(discernement)작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단어의 기본 질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Guillaume은 이러한 과정을 '개념발생'이라고 명명했다. 예를 들어 화자가 *course*나 *courir*를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많은 동작을 나타내는 개념들 가운데 달리는 개념, 즉 *idée de courir*를 식별해야 한다. 이 식별작용 혹은 추출작용은 개별화 운동을 나타내는 장력I에 의해 일어난다. 이 때 식별의 결과인 질료는 의미소(sémantème)나 어휘소(lexème)로 불리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한 개념화 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개념적 질료(matière notionnelle)[15]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식별된 개념들은 개별화 운동선상에서 서로 다른 포착의 위치로 말미암아 내포된 질료의 밀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먹는 개념, 즉 *idée de manger*를 식별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음 예문들은 동사 manger가 가지고 있는 내포적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Le chat mange la souris.
(15) Cette auto mange beaucoup d'essence.
(16) Ses cheveux mangent la figure.

예문(16)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는다>로 해석된다. 이 때 사용된 manger는 식별작용에서 가장 먼저 포착되어 자신의 고유 의미에 한참 못 미친다. 예문(15)는 <이 자동차는 기름이 많이 든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때 manger는 '먹다'라는 고유의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문(14)에서 manger는 자신의 고유한 내포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2) 형태발생(morphogénèse)

일반화 작용을 일으키는 장력II는 장력I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적 질료에 대한 '이해(entendement)'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달리다'는 개념, 즉 *idée de courir*는 명사 *course*로 이해될 수도 있고, 동사 *courir*로도 이해될 수 있다. 질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2천여 년 전부터 품사(parties du discours)라고 부르는 문법

15)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간주된 의미적인 실체, 즉 의미의 총체를 뜻한다.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1973)

적인 형태의 부여와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질료가 단어마다 특수한 것이라면, 질료를 포착하는 형태는 품사라는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보편적인 이해작용은 이미 획득된 의미를 간직하면서 그것의 일반적인 범주화를 우리 정신 속에 불러일으킨다.

한편, 두 번째 장력에서 일어나는 행태발생은 연속되는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기호학적 차원에서 단어의 형태를 발생시키는 단계이다. 그런데 단어의 형태는 외적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내적 형태가 있고, 외적으로 표시되는 외적형태, 예를 들어 어미(désinence)와 같은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형태론에서 다루는 문법적인 표지가 된다. '명사'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idée de courir*를 명사로 포착할 때 다음의 다섯 가지 표지가 *course*가 명사가 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16]

① 인칭(personne): 3인칭
② 걸림관계(incidence): 내부걸림관계[17]
③ 성(genre): 남성/여성/중성
④ 확장성(extensité): 연속적 확장(관사), 불연속적 확장(단/복수)
⑤ 기능(fonction): 격(cas) 표지

'명사'가 되는 근본적인 기준의 첫 번째는 '인칭'으로 모든 명사는 3인칭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명사는 '내부걸림관계'를 가지며, '남성', '여성', 혹은 '중성'에 해당하는 성(genre)을 가진다. 또한 명사는 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연속적 확장'이나 단/복수 개념으로 나타나는 '불연속적 확장'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명사는 문장 내에

16) Joly(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55.
17) 걸림관계에 대해서는 2.6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서 격(cas) 표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형태적 발생의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작용이 모두 끝나고 궁극적으로 단어에 품사가 부여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품사는 단어의 질료와 내부적인 형태발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어휘발생을 마치는 최종적 형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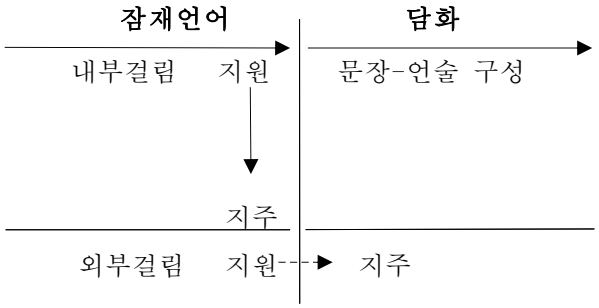
2.6. 걸림관계(incidence)

단어는 '질료적 의미작용(une signification matérielle)' 뿐만 아니라 '형태적 의미작용(une signification formelle)'까지도 포함한다. 프랑스어 동사 *marcher*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단어는 동작과 진행의 의미를 지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그 단어가 지닌 의미자질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marcher*의 의미에 대해 말할 때는 형태적 의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부여되는 가능성과 동사변화나 성·수 일치등과 같은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적용되는 형태까지도 포함된다. Guillaume이 제시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각 품사를 발생시키는 형태적 문법 범주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림 관계(incidence)'의 개념이 이 '형태적 의미작용' 중 하나이다. 그에 의하면, 이 걸림관계 메커니즘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통사적인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정신운동이며, 이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지원(支援, apport)'과 의미를 전달받는 '지주(支柱, support)'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Moignet, 1981:14-26)[18]

---

18) "...une notion nouvelle, très importante, ... Cette notion est celle d'incidence. Elle a trait au mouvement, ... selon lequel ... il y a apport de signification, et référence de l'apport à un support. La relation apport-support est couverte par

걸림관계에는 내부걸림관계(incidence interne)와 외부걸림관계(inc-idence externe)가 있다. 내부걸림관계는 지원와 지주를 모두 다 포괄하는 개체 내부에서 걸림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로 실사의 걸림관계를 들 수 있는데, 실사는 다른 서술적 품사와는 달리 자기 내부에 지원과 지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외부에서 지주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해 실사에 수반되어 있는 형식적 지주는 이미 그 의미내용인 지원에서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femme라는 단어는 'femme'라는 개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사인 것이다. 이처럼 지주가 지원의 의미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사의 걸림관계는 내부 걸림이 되며, 잠재언어 층위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형용사, 동사, 부사의 경우는 자기 내부에 지원을 지니고 있지만, 실사와 달리 내부에 이를 적용시킬 지주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외부걸림관계이다. 이를 잠재언어와 담화의 차원으로 나타낸 도표는 다음과 같다.[19]



[도표6]

le mécanisme d'incidence." (Guillaume, *Leçon de linguistiaue 2*: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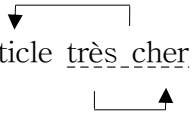
19) Joly(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70.

한편, 외부걸림관계는 외부요소 지주와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형용사 *intelligent*은 '똑똑한'이란 의미 지원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 지주를 지니고 있지 않아 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예문과 같이 지주가 되어주는 자신 외의 다른 존재를 통해 이 의미를 전달한다.

(17) La personne intelligente

(17)의 예문과 같이 형용사가 외부에 있는 지주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1도 외부걸림(incidence externe du premier degré)'이라 한다. 이처럼 외부걸림관계의 경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지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도표6]에 나타나듯 실사와 같은 내부걸림관계보다 작용시간의 위치상 나중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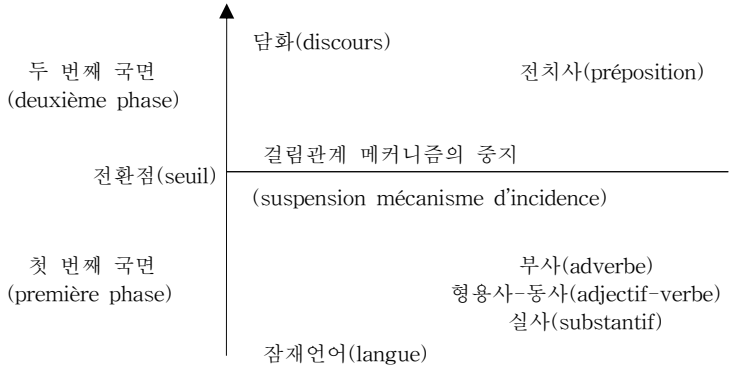
두 번째로, 형용사와 달리 외부에 있는 지주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다른 요소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를 '2도 외부걸림(incidence externe du deuxième degré)'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18)의 예문을 살펴보면 부사 *très*가 부사 *cher*에 1차적으로 걸리고 2차적으로 실사 *article*에 도달하는 것을 화살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부사와 부사의 걸림(*très*와 *cher*)의 경우 두 개의 지원이 만나 의미가 더해지는 역할만 해주며, *article*이라는 지주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걸림관계에 있는 실사는 작용시간의 초기에 나타나며, 형용사는 자신의 범주 밖에서 지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작용시간의 선상에서 더 늦게 나타난다. 또한, 이차적 걸림관계를 가지는 부사는 가장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걸림관계는 '잠재언어'에서 '담화'로 이행되는 과정이나 작용시간의 선상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지금까지 살펴본 실사, 형용사, 부사의 걸림관계는 잠재언어층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Guillaume은 다음의 [도표7]로 표현해 설명하고 있다.[20]



[도표7]

[도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언어' 층위에서 실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걸림관계가 일어나는데, 동사의 경우 형용사와 같이 실사에 걸림관계를 가지므로 같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잠재언어'와 '담화'의 전환점이 되는 지점에서는 걸림관계 메커니즘의 중지가 일어나며, 여기에서 '담화' 차원으로 전환이 되면 전치사의 걸림관계가 나타난다.

---

20) Guillaume(1971), *Leçon de linguistiaue 2*, p.164.

'담화' 층위에서 나타는 전치사의 걸림관계는 한 가지 지원에 대한 걸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논리인칭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에 대하여 걸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21] 예를 들어서 '*Alain parle* à *Julie*'라는 문장에서 전치사 à는 외부적으로 절대인칭을 지니는 동사 *parler*와 내부적으로 절대인칭을 지니는 고유명사 *Julie* 사이에 개입되어 있다. 이 때 *parler*와 *Julie*가 직접적으로 통사적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걸림관계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치사 à가 그 중간에서 두 논리인칭에 걸림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두 단어가 통사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Guillaume의 언어이론에서 전치사는 걸림관계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는 단어들, 즉 걸림관계를 갖지 않는 두 단어 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품사로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전치사의 걸림관계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1) Guillaume(1987), *Leçon de linguistiaue 8*, p.252-253.

Ⅲ. 의미차감의 정의

3.1. 의미차감의 구분

단어는 '질료(matière)', 즉 '의미'와 '형태(forme)'의 구성물이며, '심리적 실체성'을 가진 단위로서 사람의 뇌 속에서 여타 인접 단어들과 '의미'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Guillaume은 인간의 사고는 단어의 '질료'를 구성하는 의소 혹은 의미내용들을 점점 축소시켜 완전히 비워 버리는 차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신적 사고과정을 '의미차감(意味差減, subduction)'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의미차감'은 의미론과 형태론 차원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언어학적 결과들을 가져온 단어의 '탈질료화(dématérialisation)' 혹은 '탈의미화(désémantisation)' 작용을 의미한다.(Boone et Joly, 1996:391)[22] 그런데 Guillaume(1964:71)은 이러한 '의미차감성(subductivité)'이 '발생(genèse)', '존재(existence)', '소유(possession)'와 같은 근원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동사들에서 가장 최대로 나타나며, '힘(puissance)', '의지(volition)', '능력(aptitude)', '획득·도달(accession)', '접착·찬동(adhésion)', '포착(préhension)' 등을 표현하는 동사들에서도 매우 미묘한 해석을 보이면서 거의 최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23]

---

22) "La subduction(...) désigne l'opération de dématérialisation et désémantisation des mots."

23) "La subductivité est au maximim dans les verbes exprimant les idées fondamentales de genèse, d'existence, de possession (aperçue dans sa corrélation la plus étroite avec l'idée d'existence) et elle avoisine ce maximum, ou moins s'en écarte peu, dans les verbes exprimant, sous une interprétation la plus souvent fort subtile, la puissance, la volition, l'aptitude, l'accession, l'adhésion, la préhension, etc, etc."

‘의미차감’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subducere*’[24]에서 유래하였다. Guillaume이 이 용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언어분석 도구로 사용한 이유는 인간 사고가 일단의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의미가 탈색된 것으로 파악하여 개념적으로 아래로 위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단어가 자기 자신들 아래로 의미를 탈색시켜 다른 의미들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Guillaume(1964:74-75)은 사고과정이 계열적(paradigmatique) 측면에서 동질적 어휘 부류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를 ‘외적 혹은 개방적 의미차감(subduction externe ou exotérique)’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단어 내부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내적 혹은 비의(秘義)적 의미차감(subduction interne ou ésotérique)’으로 불렀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외적 의미차감, 두 번째는 내적 의미차감으로 부르고자 한다.

3.1.1. 외적 의미차감

Guillaume이 외적 혹은 개방적이라고 칭한 의미차감은 계열적 관계에 있는 어휘들 간에 ‘개념적 선행’을 통해 형성된 어휘의 위계조직과 연관된다. ‘개방적(exotérique)’이란, 의미차감이 어떤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Guillaume은 조동사(auxiliaires)나 준조동사(semi-auxiliaires)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개념적 서열화 관점에서 다른 동사들에 비해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의 차원에

24) *sub-*: dessous; *ducere*:conduire → *subducere*: conduire en dessous

서 다른 동사들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즉, 조동사의 경우 다른 동사들보다 의미차감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1992:25)[25] 예를 들어, 추론의 순서상 동사 ê*tre*는 동사 *avoir*보다 앞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는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도', '의지', '필요성', '능력'의 개념은 '동작'의 개념보다 먼저 위치되기 때문에, 동사 *pouvoir, vouloir, falloir*는 *lire, chanter, manger*와 같은 동사에 비하여 더 많이 외적 의미차감이 된 상태로 볼 수 있다. Moignet(1973:264)는 의미차감에 대한 이러한 Guillaume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동사의 의미소(sémantème)에 내재된 '의미차감성(subductivit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의미차감도가 큰 동사에서 작은 동사까지 일련의 관념적인 순서로 동사들을 나열하였다.

> "그러므로 의미차감성은 동사 의미소에 내재한다. 그것은 대강 다음과 같이 가장 큰 의미차감에서 가장 작은 의미차감까지 일종의 개념적 연속체를 구성한다.[26]
>
> 1. être 2. avoir 3. les verbes puissanciels
> (pouvoir, devoir, vouloir, savoir, falloir, convenir)
> 4. aller 5. faire 6. verbes particuliers d'action ou de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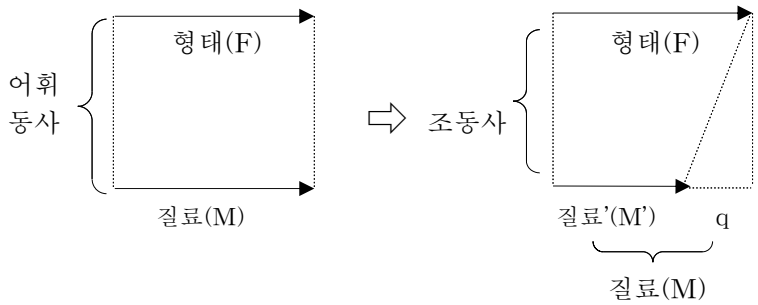
---

25) "ils descendent naturellement dans la pensée au-dessous des autres verbes, auxquels ils apparaissent idéellement préexistants"

26) "La subductivité est donc inhérente à la sémantèse verbale. Elle établit une sorte de série idéelle, qui serait en gros la suivante; du plus subductif au moins subductif; 1. être 2. avoir 3. les verbes puissanciels (pouvoir, devoir, vouloir, savoir, falloir, convenir) 4. aller 5. faire 6. verbes particuliers d'action ou de passion."

3.1.2. 내적 의미차감

내적 의미차감은 어떤 단어의 의미소가 지닌 의미가 차감됨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다양화 하거나 단어를 형태소로 전이시키는 등 의미적, 형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차감을 의미한다. Guillaume은 내적 의미차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동사의 형성을 들어 그 대표적인 예로 삼았다. 즉, 그는 조동사의 형성을 의미적으로 완전히 가득 찬 일단의 동사가 자기 자신의 의소 혹은 개념적 질료를 단계적으로 상실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7]



[도표8]

위의 [도표8]에서 어휘동사(verbe lexical)는 F로 표기된 형태의 형성과 M으로 표기된 개념 형성이 모두 완전한 상태이다. 반면에 조동사의 경우에 단어의 형태 형성은 완전한 반면, M이라고 표기되는 개념 형성은 불완전함 속에 놓인다. 다시 말해, 조동사는 형식적 측면(F)에서는 완전하지만, 개념적 부분(M')에서는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부분은 위 도표에서 q(M'=M-q)로 표기되며, 이 공백의 정도가 의미질료의 상실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상실의 정도,

27) Joly(1990), *Grammaire de l'anglais systématique*, p.175.

즉 ‘탈질료화(dématérialisation)’ 또는 ‘탈의미화(désémantisation)’가 최대로 일어나게 되면 의미소는 자율적인 어휘로서 위상을 잃고 하나의 형태소로 변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념적 순서로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 아래로 나열해주는 외적 의미차감보다는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의미차감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3.2. 동사 avoir 와 être 의미차감

Guillaume이 의미차감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살펴본 대상은 동사 ‘avoir’와 ‘être’이다. 학자들마다 조동사에 대해 내리는 정의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에서 동사 avoir와 être는 공통적으로 조동사로 인정한다. Grévisse(1957:152)는 조동사란 “동사 자신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면서 복합시제를 형성하게 도와주는 동사”라고 정의하면서 조동사의 독특성을 설명했다.[28] Guillaume(1994:73)도 역시 어떤 언어에서도 조동사가 되는 동사들은 평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이 동사들은 고유한 성향에 의해 자신의 의미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의미차감성(subductivité)’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다른 동사들에 대해 이들은 개념적으로 선재(先在)하는 조동사가 되는 것이다.[29] Grévisse의 정의에서 동사 자신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는 성향이 바로 Guillaume의 ‘의미차감성’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28) “Les verbes auxiliaires sont des verbes qui, dépouillant leur signification propre, servent à former les temps composés.”
29) “Les verbes qui deviennent des auxiliaires ne sont dans aucune langue des verbes quelconques. Ce sont des verbes qui ont pour cet état une vocation:(...)” (COMORERA, 199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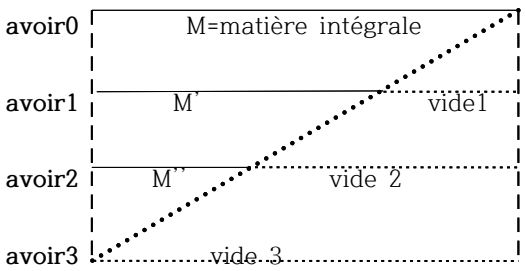
수 있다.

3.2.1. avoir의 의미차감

다음 예문들은 동사 avoir가 의미적 차감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 J'*ai* une voiture.
(20) Il *a* soif.
(21) Nous a*vons* couru.
(22) Elle chanter*ai* ce soir.

예문(19)에서 (22)로 갈수록 avoir의 고유 의미인 '소유'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의미변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의미차감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자. 우리는 avoir의 '소유하다'라는 기본의미를 avoir 0로 설정하고 의미 차감 과정을 살펴볼 것인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난다.



[도표9]

[도표9]는 의미차감 과정을 통해 avoir의 질료 M이 축소되는 과정과 avoir 0-avoir 3까지 네 단계에서 걸쳐 포착된 의치차감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avoir의 의미차감 과정은 최초의 개념적 질료가 되는 '소유'의 개념이 충만한 avoir 0에서 단계적으로 '소유'의 의미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결국엔 개념적 질료가 모두 빠져나간 문법적 형태에 도달하게 되는 avoir 3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avoir 0: 타동사로서 avoir

의미차감의 첫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avoir 0은 '소유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가득 찬 상태이다. 이 때 avoir는 자율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동사이며, 언제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avoir는 결코 혼자 쓰일 수 없으며(*Dieu a), 수동 구문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30]

(23) a. Pierre *a* de l'argent = Pierre *possède* de l'argent.
b. Pierre *avait* la solution = Pierre *tenait* la solution.

위 예문은 각각 <Pierre는 돈을 가지고 있다>, <Pierre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로 해석된다. 이 때 두 문장에 쓰인 avoir 동사는 *posséder*와 *tenir*로 대체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30)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avoir 동사의 수동태가 가능하다.
a. il m'a eu (= il a obtenu l'avantage sur moi) → j'ai été eu par lui.

2) avoir 1: 관용구의 요소로서 avoir

의미차감의 두 번째 단계인 avoir 1은 관용구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 단계에서 avoir는 내적 의미차감을 겪으면서 최초의 의미가 조금 빠져나가게 되며, 이 때 의미가 빠져나간 공백은 뒤따르는 명사가 채워주어 관용구란 의미론적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24) a. avoir l'honneur (l'avantage, l'air, etc.)
b. avoir faim (soif, chaud, envie, pitié, conscience, souvenir, peur, recours, etc.)

예문(24a)와 (24b)는 <영광이다>, <배고프다>로 해석되는 동사구문으로, avoir 1의 단계는 (24a)와 (24b)의 두 경우로 다시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먼저, (24a)에서 avoir는 여전히 어휘동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동사와 목적보어 간의 관계가 매우 고정되어 (24b)의 경우보다 통사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상태다. 반면에, (24b)에서 avoir는 의미차감 작용을 통해 어휘동사의 자격을 상실하여,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요소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24b)는 (24a)보다 의미차감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Moignet(1973:268)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의 도식으로 정리해 설명한다.

avoir(F+(M−q)) + faim((F−q)+M) =1 (un entier de discours)

[도식3]

[도식3]은 예문(21b)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avoir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소유'의 의미가 매우 약화되어, 뒤이어 오는 명사 요소가 avoir가 지닌 불충분한 의미를 충족시키면서 관용구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avoir는 거의 시제와 인칭을 지시하는 요소로만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치사 à를 사용하여 avoir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avoir* à + *infinitif*> 유형도 이 단계에 속한다.

3) avoir 2: 조동사로서 avoir

세 번째 의미차감의 단계에서 포착되는 avoir 2는 조동사 avoir이다. 이 때 avoir는 복합과거 시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며, 어휘 동사의 층위를 벗어나 다른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한 활용요소로 사용된다. 즉, 이 단계에서 avoir는 최초의 의미인 '소유하다'라는 개념은 거의 지니고 있지 않으며, 문법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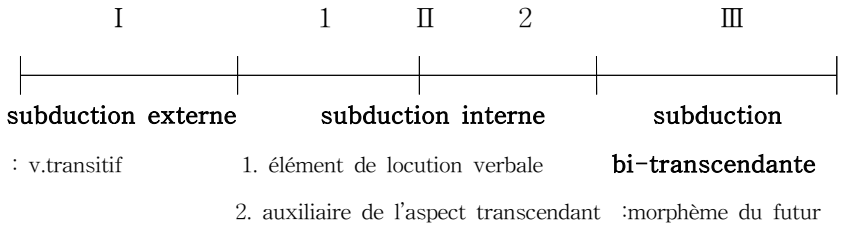
(25) Pierre a marché.

예문(25)은 <Pierre는 걸었다>로 해석되는 문장으로, 이 때 avoir 동사는 '걷다(*marcher*)'라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따라서 이 단계의 avoir는 동사가 의미하는 사건이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요소로 기능한다.

4) avoir 3: 접미사로서 avoir

의미차감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avoir 3에서 avoir는 단어로서 자율성을 잃고 접미사로 변환된다. 이 단계에서 avoir는 의미차감 작용을 통해 질료를 완전히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je chanter-ai*', '*je chanter-ais*'와 같은 미래어간을 충족시켜주는 형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avoir는 더 이상 법과 시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본래 어간(av-)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avoir의 의미차감은 네 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를 Moignet(1973:269)는 다음과 같이 다시 외적의미차감, 내적의미차감, 그리고 이중초월 의미차감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다.



[도표10]

위 도표에서 왼쪽에 위치한 타동사로서 avoir의 단계는 외적 의미차감에 속하는 위치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동사들과 관념적 서열의 관계가 결정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타동사 avoir가 내적 의미차감을 겪으면 동사구의 요소나 완료상으로서 조동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중 초월을 통한 의미차감을 겪고 나면 avoir는 미래어미 형태소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avoir동사는 타동사로서 avoir, 관용구의 요소와 완료상의 조동사로서 avoir, 미래어미 형태소로 작용하는 avoir라는 일련의 의미차감 과정을 겪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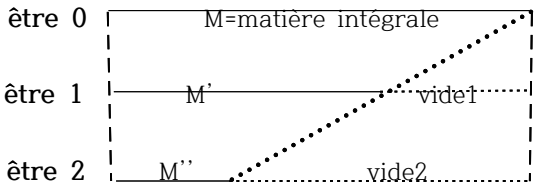
3.2.2. être의 의미차감

다음 예문들은 앞서 살펴 본 동사 avoir와 마찬가지로 동사 être도 여러 맥락에서 의미적 변화를 겪는 것을 보여준다.

(26) Être ou ne pas être.
(27) Paris est la capitale de la France.
(28) Elle m'est passé sous le nez.

예문(26-28)은 <사느냐 죽느냐>,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그녀는 내 앞을 지나갔다>로 해석되며, être가 여러 의미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être의 다양한 의미를 의미차감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존재하다'가 가득 찬 상태를 être 0로 설정하고, être의 의미차감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의미차감의 단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31]

31) Joly(1990:179)는 영어 be동사의 사례로 이를 재해석했다.



[도표11]

[도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être의 질료 M이 의미차감 작용을 통해 줄어들면서 세 단계에 걸쳐 일어난 의미차감을 도식화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avoir와 달리 의미차감의 마지막 단계인 être 2에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 질료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être는 내적 의미차감 작용이 끝난 후에도 어휘로서 자율적인 위상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1) être 0: 어휘동사 être

첫 번째 의미차감이 단계는 être 0로, 어휘동사 être가 포착된다. 이 단계에서 être는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가득 찬 상태이며, avoir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être 0에서 être는 자동사로서 홀로 쓰일 수 있으며, 동사 *existe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9) Je pense, donc je suis.

예문(29)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해석되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이다. 이 단계에서 être는 최초의 의미가 가득 찬 상태로, 최초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2) être 1: 계사(copule) être

두 번째 단계에서는 être 1이 포착되며, 이 단계에서부터 être의 내적 의미차감 작용이 일어난다. 이 때 être는 '존재하다'의 의미가 조금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단계의 être는 주어와 관련된 개념을 불러오는 계사(copule)로서 기능하며,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상호 동등하고,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30) a. Séoul est la capitale de la Corée.
b. Alain est malade.
c. Alain est loin.

위 예문은 각각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Alain은 아프다>, <Alain은 멀리 있다>로 해석되며, 이 경우 être는 계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문(30a)에서 être는 동사 *égaler*로 대체 가능하며, 주어와 보어의 동등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30b)와 (30c)에서 être는 속사 형용사나 부사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3) être 2: 조동사 être

의미차감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être 2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être의 경우이다. 이 단계에서 être는 어휘동사로서 지위는 모두 잃고, 시제와 인칭을 지시하는 요소로만 기능한다.

(31) a. Pierre *est* puni par l'instituteur.

b. La Bastille *fut* prise le 14 juillet 1789.

예문(31)은 각각 <Pierre는 선생님에게 벌을 받는다>, <Bastille는 1789년 7월 14일 점령당했다>로 해석되는데, 예문에서 être는 주어의 상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이 단계에서 être와 동사의 과거분사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사 être와 (30b), (30c)에서 살펴본 속사 형용사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30b)나 (30c) 두 경우 속사보어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내용이 주어의 속성임을 나타내지만, 위 예문(31)에서 나타난 속사보어의 경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차이를 가진다.

Ⅳ. 의미차감의 적용

본 장에서는 앞서 Guillaume이 제시한 조동사에서 출발한 의미차감의 적용대상을 확장시켜 문법요소인 NE와 DE에서도 의미차감이 일어남을 보고자 한다. 또한 의미차감이 다의현상 설명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사 Entendre를 선택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언어사전들을 참고하여 용법을 정리하고, 각 언어형태에 의미차감이 의미적 혹은 기능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1. 의미차감과 NE

본 절에서 문법 형태소 NE의 용법들을 분석함으로써 의미차감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효과들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NE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negation)'을 NE의 기본적 의미로 보고 다음 논의를 진행하겠다.

4.1.1. NE와 부정

1) NE의 기원과 발전

프랑스어의 부정부사 NE는 라틴어 'non'에 기원을 둔 프랑스어

단어 non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불어에서는 라틴어 'non'을 그대로 차용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32]

(32) Si io returnar non l'int pois[33] (=si je ne l'en puis détourner)

그러나 후접어였던 부정어 non은 동사나 관계되는 술어기능을 부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동사 앞에 위치하는 전접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ne(n)[34]로 변화하였고 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Nen의 형태는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부터는 대명사 il과 함께 결합되어 절대부정(négation absolue)을 나타내는 nenil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17세기에는 (33a-b)에서 보듯이 nenni의 형태로 변화 사용된다.[35]

(33) a. Est-ce assez? Dites-moi. N'y suis-je point encore?
- Nenini - M'y voici donc?[36]
b. Tu penses fuir? - Nenni.[37]

고어에서 단독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던 NE는 점차 *pas, point, mie, brin, gouttem mais* 등과 함께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ne...pas(point)*의 형태가 부정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처럼 NE와 함께 쓰인 제 2 부정어들 대부분은 원래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NE와 함께 쓰임으로써 부정의 의미

32) Dauzet et al.(1971:489), *Nouveau dictionnaire etymologique*, Paris, Larousse.
33) Sermant de Strasboung(842)에서 인용.
34) nen은 고어에서 모음 앞에 나타나는 형태로 non에서 유래한다.
35) F.Brunot(1965), *La pensée et la langue*, Paris, Masson&Cie, p.494.
36) La Font. Fab. 1.3.
37) Mol.Deo An 22.

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종종 제 2 부정어가 NE보다 강하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어 부정부사 NE 없이도 홀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문법적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구어에서는 '*je ne sais pas*' 대신에 '*je sais pas*'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한편, NE 없이 홀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pas*는 적용영역이 확장되어 다음의 예문과 같이 *non*이 쓰이는 고유의 영역에서 non과 경쟁하기에 이르렀다.

(34) a. un individu pas intéressant
b. expliquer pas clairement
c. il a élu, pas sans pe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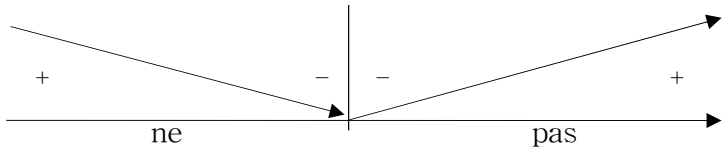
예문(34a-c)는 각각 non이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구의 부정을 *pas*를 사용하여 표현한 예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문법적 규제가 약한 구어에서 *pas*는 다음과 같이 문장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위치는 매우 자유롭다.

(35) a. il aime la danse, pas moi
b. il aime la danse, moi pas

위 예문은 구어에서 제 2 부정어 *pas*가 *moi*를 부정하기 위해 전후 위치에서 모두 쓰인 경우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제 2 부정어는 부정하고자 하는 내용 근처에서 위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신역학이론에서의 N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가 제 2 부정어 *pas, point, jamais* 등과 함께 표현되는 프랑스어 완전 부정표현 작용은 정신역학이론의 이원장력 모델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부정의 메커니즘은 먼저 첫째 장력, 다시 말해 개별화 운동에 의거하여 긍정적인 것이 부정된다. 이 '긍정의 부정화(négativation du positif)' 작용이 바로 NE가 함의하고 있는 내재적 부정을 생성하는 장력이다. 그런데 이 첫째 장력에서 일어나는 부정화 운동은 둘째 장력, 즉 일반화 운동에 의거하여 초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역방향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하는 '부정의 긍정화(positivation du négatif)'작용이 나타난다. 그 결과 둘째 장력은 부정의 의미를 매우 강화시키며, 이는 *pas, point, jamis, plus* 등의 기호들로 기호화된다. 다시 말해서 NE로 인해 부정화작용이 시작되고, 그 후 *pas*로 인해 부정이 강화되어 완전한 부정의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다. Moignet(1981:206)는 프랑스어의 부정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장력: 긍정의 부정화)　(두 번째 장력: 부정의 긍정화=강화된 부정성)

[도표12]

그런데, 위의 이원장력에서 두 번째 장력을 함의하는 부정어들은 속성상 대부분 긍정적 방향을 지향한다.[38] 따라서 의문절과 같은 비

38) 제 2 부정어들은 대명사(personne, rien), 형용사(aucun, nul), 부사(guère, plus, jamais, nulle part, aucunement) 또는 접속사(ni) 등 다양한 품사들로 구성되어 부정적인 개념을 유발한다.

단언문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어휘들은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36) a-t-on jamais vu pareille chose?

위 예문에서 의문문 속에 사용된 제 2 부정어 *jamais*는 부정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체험한 경험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두 번째 장력을 함의하는 부정어들 중에는 NE와 결합하지 않은 채, 고유의 의미소(sémantèse)를 그대로 살려서 완전한 부정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37) J'ai travaillé pour rien

예문(37)은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일하지 않는다>로 해석되며, 이 때 *rien*은 NE 없이 그 자체로 문장에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4.1.2. NE의 용법

Nouveau Petit le ROBERT(1994),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1994), 『동아 프라임 Dictionnaire française-coréen』 *(2007),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1994)* 등에서 언급된 다양한 NE의 용법들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NE

다음의 예문(38-47)에서 보듯이, NE는 뒤이어 나타나는 *pas*나 *point*과 같은 제 2 부정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NE는 '*ne ... pas*'의 구문에서와 같이 여전히 부정의 의미를 지닌 상태이다. 따라서 제 2 부정어는 생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관용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된 제 2 부정어를 다시 되살려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NE의 용법은 다음 예문들에서 나타나듯이 10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39]

(38) Il *n*'est pire eau que l'eau qui dort.
(39) Il *ne* m'en chaut.
(40) Il *ne* mange ni ne boit.
(41) Si le choix est si beau, que *ne* le prenez-vous?
(42) Il n'est pas d'homme qui *ne* désire être heureux.
(43) Il *ne* cesse de parler.
(44) Il ne pouvait pas s'endormir si je *ne* l'avais embrassé.
(45) Je *n*'ai d'autre désir que d'être encore avec vous.
(46) Il y avait bien trois semaines que je *ne* l'avais vu.
(47) Ce n'est pas qu'il *ne* faille quelquefois pardonner.

예문(38)은 <고인 물보다 나쁜 물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숙어이다. 이처럼 특정 숙어절에서 NE는 단독으로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39)는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용적 표현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NE의 경우이다. (40)에서 NE는 <그는

39) Grevisse(1980), *le bon usage*, Paris, Duculot, pp.1072-1074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해석되며, *manger*와 *boire*에 대한 두 번의 부정을 하기 위해 제 2 부정어 없이 *ni*와 함께 쓰인 경우이다. 예문(41)의 NE는 '*pourquoi*'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que 종속절에서 쓰이는 경우로, 종종 의문형용사나 의문대명사 다음에 오는 NE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42)는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로 해석되는 문장으로, 주절이 의문절이나 부정절인 경우 종속절에서 NE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이다. 예문(43)에서 NE는 부정법을 이끄는 *cesser, daigner, oser, pouvoir* 등의 동사와 함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으며, (44)는 *si*조건절에서, (45)는 접속사 que가 뒤이어 오는 autre 앞에서, (46)은 *depuis que, il y a tel temps que, voici ou voil*à *tel temps que*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가 복합 시제로 나타날 때 쓰이는 NE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예문(47)은 <이것은 여러 번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로 해석되며, *ce n'est pas que, ce n'est point que, non que, non pas que* 와 같은 표현 다음에 독립적으로 사용된 NE의 경우를 보여준다.

2) 제 2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는 NE

두 번째로 살펴볼 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의 표현으로 알고 있는 '*ne* – *pas*'와 같이 NE와 제 2 부정어가 함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48) a. Je *ne* chante *pas*.

b. Elle *n*'a *pas* fini.

c. Je *n*'en ai *aucune* idée.

49) Je crains de *ne jamais/plus* comprendre.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현대 프랑스어에서 부정부사 NE는 *pas, point, jamais, nul, aucunement, guère, nullement, personne, plus, que, rien*와 같은 제 2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 문장에 부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 NE는 항상 다른 부정부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인칭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 또한 예문(49)는 <나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는 원형 부정사 앞에서는 두 개의 부정부사가 함께 나란히 사용되어 동사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NE - QUE 구문에서의 NE

NE의 특수 용법 중 하나인 '*ne - que*' 구문은 라틴어 '*non - quam*' 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한'의 의미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이 용법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NE와 별도로 다루고 있다.

(50) a. On *n*'entend *que* des cris, on *ne* voit *que* des larmes.

b. Je *ne* suis *que* triste.

위 예문에서 사용된 NE는 문장 안에서 혼자서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오직 que의 출현으로 인해 동사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 두 예문은 <우리는 울음소리만 들리고, 눈물만 보인다>와 <우리는 비통할 뿐이다>로 해석되며, 이 때 두 문장

에 쓰인 '*ne - que*' 구문은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부사 '*seulement*'으로 대체 가능하다.

(50a)' On entend seulement des cris, on voit seulement des larmes.
(50b)' Je suis seulement triste.

한편, '*ne - que*' 구문은 단순시제 뿐 아니라 복합 시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원형부정사가 다음에 오는 '*ne faire que*' 구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51) Un oiseau tomba(...), que ma flèche *n*'avait *que* blessé.
(52) Je *n*'ai fait *que* le voir.

예문(51)은 <한 마리의 새가 떨어졌고 (...), 내 화살이 손상됐을 뿐이다>, (52)는 <나는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로 해석된다. 이처럼 '*ne - que*' 구문에서 NE는 부정의 의미는 거의 갖지 않고, *que*와 함께 제한의 의미를 표현하는 요소로 기능하며, *que*는 동사 다음에 위치하기만 하면 다음에 오는 어떠한 단어나 명사, 전치사, 부사구든지 제한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허사의 NE(NE explétif)

소위 허사의 NE는 논리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 때 NE는 본질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허사 NE는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예문(53-56)에서 보듯이 특정 종속절에서는 다른 부정부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한다.

(53) Je crains qu'on *ne* me trompe.
(54) Je ne doute point qu'il *n*'y ait eu une ancienne erreur.
(55) Mieux que je *ne* pourrais le faire.
(56) Il se peut que l'on pleure, à moins que l'on *ne* rie.

위 예문(53)은 허사 NE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으로서, 두려움, 방해, 방어를 표현하는 동사의 목적보어절에서 허사의 NE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때 허사의 NE는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종속절에서 주절의 동사의 영향으로 부정적 느낌을 상기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 *craindre*의 종속절에 나타난 NE는 허사의 NE가 분명하지만, *craindre*가 지닌 의미의 영향으로 화자의 불확실한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53)은 <나를 속이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난 두렵다>[40]란 두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문(54)의 허사의 NE는 의혹을 나타내는 동사 *douter*의 부정형 다음에 오는 절에 쓰이는 경우이다. 이 문장은 <나는 이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로 해석되며, 허사의 NE는 아무런 부정의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55)의 허사 NE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낫다>로 해석되는 비교절에서 쓰인 경우이다. 이 때 일반적으로 주절은 단정적이며, 동등하지 않은 열등 혹은 우등 비교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예문(56)는 *à moins que*나 *avant que*와 같은 접속사구 다음에 허사의 NE가 쓰인 경우이다. 이 때 NE는 부정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종속절의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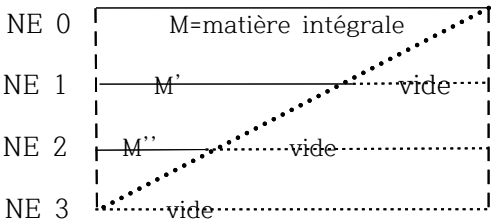
40) "*Pourvu qu'on ne me trompe pas! mais je crains...*"

의 의미는 à *moins que*가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허사의 NE는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의미적 관점에서 불평등 비교구문 혹은 특수 구문의 전체 문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사 NE는 부정의 의미를 잃고 임의적으로 특정 구문에서만 사용되면서 점점 구어에서 그 쓰임이 사라지고 있다.

4.1.3 NE와 의미차감

앞에서 서술한 NE의 다양한 의미들은 '의미차감' 작용을 통해 일괄적으로 설명된다. 즉, Moignet(1981:205)의 제안처럼 우리는 NE의 여러 의미들을 부정의 개념이 가득 찬 가장 기본적인 NE에서 출발하여 점차 부정의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도표13]

NE의 의미차감 단계를 나타낸 [도표13]은 수직축으로 이동할수록 탈의미화(désémantisation)작용으로 최초의 충만했던 의미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의미가 줄어든

분량을 표시하는 것이며, 가로의 실선 부분은 남아있는 의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도표13]에서 NE는 부정의 의미가 가장 가득 찬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NE의 의미차감 첫 번째 단계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NE의 경우이며, 둘째 단계는 제 2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NE의 경우이고, 세 번째는 '*ne - que*' 구문에서 쓰인 NE이며, 마지막 단계는 허사의 NE에 해당한다.

1) NE 0: NE의 독립적 사용

NE의 의미차감 첫 번째 단계에서 포착된 NE 0는 대부분 종속절이나 의문절에서 제 2 부정어 없이 독립적으로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57) a. si je *ne* me trompe, il est en retard
b. qui *ne* voit qu'il se trompe?

위 예문은 각각 <만약 내가 틀리지 않다면, 그는 늦었다>와 <누가 그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가?>로 해석된다. 그리고 (57a)의 NE는 특정적인 조건 하에서 '틀리다'라는 의미를, (57b)의 NE는 '보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이 두 경우에서 NE는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다른 요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 부정의 의미가 가득 찬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첫째 단계에서 포착된 NE는 *je ne puis, je ne sais, je n'ose* 에서처럼, 준조동사로 기능하는 양태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또 *(il) n'importe*와 같은 구문에서도 발견된다.

2) NE 1: 제 2 부정어와 함께 사용된 NE

두 번째 의미차감의 단계는 NE가 제 2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 때 NE는 제 2 부정어와 함께 부정의 의미를 나눠서 표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보다 부정의 의미가 조금 더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다.

(58) a. Je *ne* chante *pas*.
b. Elle *n*'a *pas* fini.
c. Je *n*'en ai *aucune* idée.

즉 예문(58)의 NE는 제 2 부정어 *pas, point*과 함께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문장들은 각각 <나는 노래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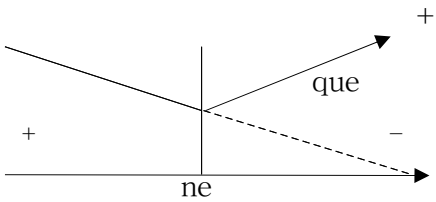
3) NE 2: NE - QUE 구문

의미차감 세 번째 단계에서는 '*ne - que*' 구문에서 사용되는 NE 2가 발생된다. 이 단계에서 NE는 부정의 의미가 더 많이 빠져나가 이전단계보다 부정의 의미가 더 희석된 상태이다. 또한 의미차감 과정을 통해 NE가 지닌 부정의 의미가 빠져나간 분량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빠져나간 부정의 공간을 형태 *que*가 채워준다.

(59) il *ne* boit *que* de l'eau.

앞의 예문은 <그는 물만 마신다>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 NE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que*와 함께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Moignet(1981:205)는 이와 같은 NE 2단계의 '*ne - que*'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Guillaume의 근원적 이원장력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의 도표로 나타냈다.



[도표14]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 *que*는 두 번째 장력을 열어줌과 동시에, 점점 감소되는 부정의 운동을 나타내는 화살표 방향을 긍정 쪽으로 꺾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que*와 함께 쓰인 NE의 의미효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닌 '한정(restriction)'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는 다른 것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물만 마신다(Il boit, restrictive-ment, à l'exclusion d'autre chose, de l'eau)>의 문장과 같은 뜻이 된다.

4) NE 3: 허사의 NE

의미차감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착된 NE 3는 허사의 NE이다. 이 단계에서 NE는 탈의미화가 꽤 많이 진행되어 부정의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

(60) dépêche-toi de partir avant qu'il *n*'arrive
(61) a. je crains qu'il *n*'ait manqué le train
b. il faut empêcher qu'il *ne* parle
(62) il s'amuse plus qu'il *ne* travaille.

예문(60)은 허사의 NE가 '*avant que*'에 의해 유도되는 시간부사절에서 쓰여 <그가 오기 전에 서둘러 떠나라>로 해석된다. 이 경우 NE는 종속절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거절감을 표현한다. (61)의 예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사의 NE가 두려움이나 방해를 의미하는 동사의 보어절에서 두려움과 방해라는 시각 속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부정의 의미를 '회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예문(62)에서 사용된 NE는 *que*에 의해 유도된 불평등 비교문의 동사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가진 선행동사와 비교하여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NE는 비교문의 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동사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62)의 예문은 그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것보다 즐기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차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포착된 NE 3는 객관적으로 부정의 의미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부정의 의미를 초월하여 선행하는 주절의 동사의 의미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2. 의미차감과 DE

전통문법에서부터 현대 언어 이론까지 전치사 DE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기능과 의미관계에 대한 설명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문법에서는 전치사 DE의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전치사 DE가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단순히 앞뒤의 두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어있는 전치사(préposition vide)'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몇몇 언어학자들도 있다. Gougenheim (1959:14-16)은 '비어있는 전치사' 대신에 전치사의 '내재적 가치(valeur intrinsèque)'라는 용어를 쓰면서, DE를 물질관사나 부정관사 역할을 하는 '부분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 칭했다. 그리고 Moignet(1981:219)는 전치사로서의 DE와 관사나 양화사로서의 DE의 두 가지 분류를 제시하며, 이 두 경우 모두 '멀어짐(éloignement)'이라는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Pottier(1987:138)는 DE를 속격(génitif)에 해당하는 세 가지 개념격(cas conceptuel)으로 분류해 설명한다.[41] 본 절에서는 의미차감이 DE에서 어떻게 발생되는 가를 중심으로 DE의 기능과 의미관계를 살펴보겠다.

41) a. 능격(ergatif): le cadeau de Pierre (FAIRE)
b. 명격(nominatif): le chapeau de Pierre (AVOIR)
c. 대격(accusatif): l'assassinat de Pierre (SUBIRE)

4.2.1. 전치사로서의 DE

정신역학이론에서 전치사는 '비서술적 품사(parties de langue non prédicatives)' 중 하나로, '서술적 품사(parties de langue prédicatives)'가 '걸림관계' 메커니즘에 의해 서로 통사적으로 결합될 수 없을 때, 이들의 통사관계를 설정해 주는 요소이다.[42] 다시 말해서 전치사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문법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잠재언어' 층위에서 내부걸림관계를 갖는 두 명사 livre와 Pierre의 경우 '잠재언어' 층위를 벗어난 '담화' 층위에서 두 요소의 결합은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 때 '*livre de Pierre*'와 같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전치사 DE이다. Guillaume(1982:159)은 이와 같이 '담화' 층위에서 두 서술적 품사 사이에 생기는 공백을 정신적인 간격(intervalle psychique)이라 하고[43],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전치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전치사의 걸림관계는 '담화' 층위에서 일어나며, 서술적인 품사가 하나의 지주에 걸림관계를 갖는 것과 달리 두 개의 지주를 필요로 한다.[44] 또한 그는 이 때 앞에 오는 지주를 '선행지주(support d'avant)'로, 뒤에 오는 지주를 '후행지주(support d'après)로 명명했다. Moignet(1981:217)는 이렇게 두 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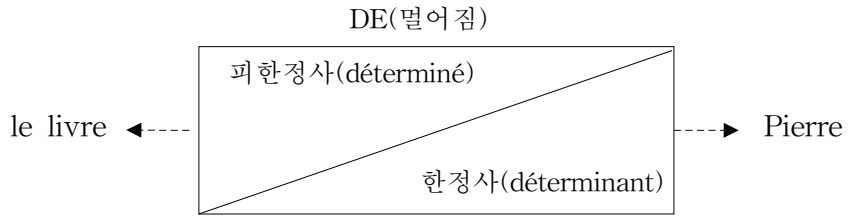
---

42) "Nous avons défini la préposition comme étant une partie de langue non prédicative, porteuse d'un sens hautement abstrait des données de l'expérience, capable d'établir un rapport syntaxique entre deux éléments que ne peuvent conjoindre les mécanismes de l'incidence tels qu'ils fonctionnenent entre parties de langue prédicatives." (Moignet, 1981:217)

43) "On reconnait là le caractère diastématique de la préposition, laquelle a son incidence, non pas à un mot de dicours, mais à l'intervalle psychique inscrit entre deux mots de discours.(Guillaume, 1973:159)

44) Guillaume은 하나의 형식에 걸림관계를 갖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들의 속성을 'stématique'라 하고, 두 개의 형식에 걸림관계를 갖는 전치사의 속성을 'diastématique'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언어기호를 연결시켜주는 전치사의 걸림관계를 '양방향 걸림관계(incidence bilatérale)'라 불렀다. 요약하자면, 전치사 DE는 명사류가 '잠재언어' 층위에서 '담화' 층위의 문장에 개입될 때 선행지주와 후행지주가 직접 걸림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틈(diastème)'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치사의 걸림관계를 고려하여 DE의 기능 작용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45]



[도표15]

한편, 전치사로서 기능하는 DE는 부사구와 형용사구를 만드는 경우의 두 가지 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46]

1) 형용사구

전치사 DE가 형용사구를 만드는 경우는 소속, 성질, 기능, 직분, 재료, 부분 등을 나타낸다. 형용사구를 만드는 전치사 DE는 선행지주와 후행지주에 걸림관계를 가지며 문장에서 두 지주를 통사적으로 연결해주는데, 이 경우 선행지주와 후행지주는 보통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다.

45) Moignet(1981),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Klincksieck. p.219.
46) 박옥줄(1984), *Gramm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p.391-395.

(63) a. Le livre *de* Pierre est sur la table.(소유·소속)

b. J'ai passé l'été à la ville *de* mon oncle.(성질·기능·직분)

c. un pont *de* bois./Il a un front *d'*airain.(재료)

d. un verre *de* vin.(부분)

위 예문 중 특히 (63c)와 같이 사물의 재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DE는 '*en*'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Il a un front d'airain'에서처럼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언제나 DE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2) 부사구

전치사 DE는 명사와 함께 부사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DE는 문장에서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뿐 아니라 방법, 원인, 수단, 비례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64) a. Il vient *de* Paris.(시간 및 공간의 출발점)

b. La lumière vient *de* l'est.(방향·분리·위치)

c. Il me regarda *d'*un air fâché.(방법·모양)

d. Il ne reviendra pas *de* longtemps.(막연한 시간)

e. Je suis content *d'*avoir enfin réussi.(유래·원인·관계)

f. Il est aimé *de* ses amis.(동작주·수단·도구)

g. Nous nous nonurissons *de* fruits et *de* légumes.(식재료)

h. Ma montre retarde chaque jour *de* dix minutes.(비례·계량)

예문(64a-h)에서 DE는 선행지주와 후행지주에 모두 걸림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통사적 관계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전치사로 기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파리에서 왔다>로 해석되는 예문(64a)에서 동사 venir와 명사 Paris간의 통사적 관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 때 DE는 전치사이다.

4.2.2. 탈(脫)전치사로서의 DE

박옥줄(1984:394-395)은 전치사의 기능을 초월하여 더 이상 전치사로 기능하지 않는 DE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든 예문에서 DE는 오직 후행지주와 걸림관계를 맺기 때문에 전치사로 기능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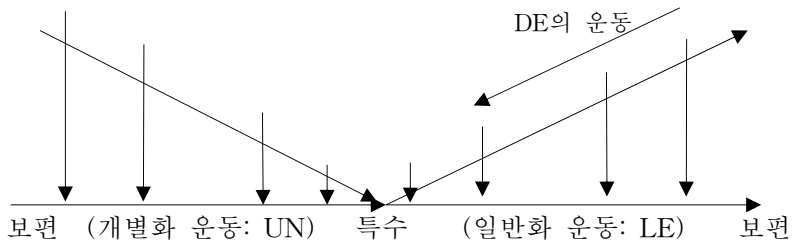
(65) a. *De* lui répondre serait sans intérêt.
b. Il promet *de* nous aider.
(66) Pierre n'a pas mangé *de* pain.
(67) Il a mangé *de* ce pain.
(68) Elle a mangé *de* bons fruits.
(69) Je bois *du* vin.

예문(65-69)는 DE가 <DE+부정법(infinitif)> 구문으로 주어나 속사 또는 목적보어로 사용된 경우, 부정문에서의 DE, 목적보어로서 <DE+지시·소유형용사+명사>나 <DE+형용사+명사> 구문을 이루는 경우, 그리고 부분관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위의 예문들 가운데 (65)의 DE는 부정법을 현동화 시켜주는 요소(actualisateur)로 기능한다. Guillaume(1984:97)에 따르면 부정법은

준명사법(quasi-nominal)으로서 명사에 비해 훨씬 큰 잠재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정법 앞에 사용된 DE는 잠재성을 현동화 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일종의 부정법의 관사로서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문(69)에서 목적보어가 되는 경우, DE는 후행지주 이 명사와 걸림관계를 맺고 관사와 함께 후행지주의 구성요소가 된다. 한편, 이 경우 부분관사 DU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두 운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즉, DU는 앞의 2.2절에서 이원장력 모형에 나타나 일반화 운동을 일으키는 LE와 이에 역행하는 개별화 운동을 일으키는 DE와의 결합이다.[47] 그 결과 DE는 다음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화 운동을 개별화 운동으로 환원 혹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별화운동을 함의하는 부정관사와 유사한 움직임을 갖는다.[48]



[도표16]

정신역학이론가들은 타동성을 지닌 동사들이 어떤 외적인 언어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후속하는 명사와 걸림관계를 형성하고

47) DU
LE → | ← DE
(Moignet, 1981:136)

48) 이승대(1994), '전치사 de의 내재성과 초월성', 『경성대학교 어문학』 제15집, p.35-48

자 할 때, 동사와 명사 중간에 위치해 이들의 통사관계를 설정해주는 위의 나머지의 경우의 DE가 기능상 '역전소(inverseur)'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때 DE는 전치사성을 상실하고 일종의 관사로 기능하며, '양방향 걸림관계'를 가지는 전치사와 달리 후행지주에만 걸림관계를 가진다는 특징을 있다.

4.2.3. DE와 의미차감

다음의 예문들은 DE가 가진 고유한 기능인 전치사성을 잃고 담화차원에서 통사·의미론적인 제약에 의한 다양한 의미효과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전치사 DE는 의미차감 과정을 통해 점점 전치사성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정관사가 나타내는 일반성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상쇄하는 완벽한 '역전소'로 나아간다.

(64a) Le livre *de* Pierre est sur la table.
(65) a. *De* lui répondre serait sans intérêt.
b. Il promet *de* nous aider.
(66) Pierre n'a pas mangé *de* pain.
(67) Il a mangé *de* ce pain.
(68) Elle a mangé *de* bons fruits.
(69) Je bois *du* vin.
(70) Ou bien, à science égale, y-a-t-il des grands généraux comme il y a *de* grands chirurgiens?[49)]

---

49) Extrait d"'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ous m'intéressez(...)Ne fait-il vraiment qu'appliquer des règles? **Ou bien, à science égale, y a-t-il de grands généraux comme il y a de grands chirurgiens** qui, les éléments

앞의 예문들에 의거하여 DE의 고유한 의미이자 기능인 전치사성이 가득한 상태를 DE 0라고 설정한다면, 의미차감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DE 0: 전치사 DE

첫 번째 의미차감의 단계인 DE 0는 '전치사 DE'에 해당하며, 전치사성이 가득 찬 경우이다.

(64a) Le livre *de* Pierre est sur la table.

예문(64b)에서 DE는 선행지주와 후행지주에 '양방향 걸림관계'를 가지는데, 이 때 어느 한 쪽 지주에 속해서 문장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문장의 통사적 결합을 위해 쓰인 전치사로 기능한다.

2) DE 2: 부정법을 유도하는 DE

부정법의 관사(article de l'infinitif)라고도 불리는 'de+부정법' 형태는 담화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의 DE는 (65a)처럼 주어나 속사일 수 있으며, (65b)처럼 목적보어일 수가 있다.

---

fournis par deux états maladifs étant les mêmes au point de vue matériel, sentent pourtant à un rien, peut-être fait de leur expérience, mais interprété, que dans tel cas ils ont plutôt à faire ceci, dans tel cas plutôt à faire cela, que dans tel cas il convient plutôt d'opérer, dans tel cas de s'abstenir?"

(65) a. *De* lui répondre serait sans intérêt.

b. Il promet *de* nous aider.

예문(65)에서 DE는 부정법을 현동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준명사법(quasi-nominal)에 해당하여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성을 지향하는 부정법의 경향을 DE가 개별화 경향으로 차단함으로써 현동화 역할을 한다. 하지만 Moignet(1981:237)가 지적한 것처럼 DE는 동사구와 부정법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법에 명사류의 지위를 부여하고 부정법을 동사 신분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단계의 DE는 전치사성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3) DE 2: 부정의 DE

의미차감의 세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DE 2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DE의 경우이다. 이 단계에서 DE는 전치사성을 상실하고 후행지주에만 걸림관계를 가지며, 문장에서 후행지주와 함께 목적보어로 쓰여 통사적 구조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후행지주의 일반화 운동을 저지시키는 정도가 매우 미세해서 정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단계의 DE를 '부정의 DE'라고 부르기도 한다.

(66) Pierre n'a pas mangé *de* pain.

위 예문에서 DE는 'pain'에만 걸림관계를 가지며, 'de pain'은 그

결과 동사 manger의 목적보어로 쓰여 동사의 타동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4) DE 3: ‘DE+지시·소유형용사+명사’ 구문

DE의 의미차감 단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DE+지시·소유형용사+명사> 구문에서 사용된 DE 3가 포착된다. 이 단계에서 후행지주의 지시·소유형용사의 사용으로 DE 2보다 외연범위는 개별성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역전소’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전치사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7) Il a mangé *de* ce pain.

위 예문은 <그는 이 빵을 먹었다>로 해석되는데, 지시·소유형용사는 명사 ‘빵(pain)’이 지닌 일반성을 ‘이 빵’이라는 구체적인 개별성으로 한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지시형용사는 명사에 구체성 혹은 개별성을 부여하는 ‘역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전소’ 기능은 DE와 나누어 갖는다고 볼 수 있다.

5) DE 4: ‘DE+형용사+명사’ 구문

의미차감의 다섯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DE 4는 ‘DE+형용사+명사’ 구문이다.

(68) Elle a mangé *de* bons fruits.

위 예문에서 형용사 '*bons*'은 걸림관계를 통해 '과일(fruit)'의 일반성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의 DE는 명사의 외연범위가 DE 3 단계보다 커지는데, 이는 일반형용사가 지시·소유형용사보다 제한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화 운동을 저지시키는 '역전소'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DE 4 단계에서 DE는 형용사와 함께 '역전소'의 역할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완전한 '역전소'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Guillaume(1964:177)의 견해에 따르면 DE에 뒤따라오는 명사구에 전치한 형용사가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냐,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이냐에 따라 '역전소' DE가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자.

(70) Ou bien, à science égale, y-a-t-il des grands généraux comme il y a *de* grands chirurgiens?[50] (M.Proust)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발췌한 예문(70)은 <아니면, 똑같이 과학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외과의사들이 있는 것만큼 위대한 장군들이 있다는 건가요?>로 해석된다. 이 때 "*des* grands généraux"와 "*de* grands chirurgiens"은 전치한 형용사의 성

50) Extrait d'*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ous m'intéressez(...)Ne fait-il vraiment qu'appliquer des règles? **Ou bien, à science égale, y a-t-il de grands généraux comme il y a de grands chirurgiens** qui, les éléments fournis par deux états maladifs étant les mêmes au point de vue matériel, sentent pourtant à un rien, peut-être fait de leur expérience, mais interprété, que dans tel cas ils ont plutôt à faire ceci, dans tel cas plutôt à faire cela, que dans tel cas il convient plutôt d'opérer, dans tel cas de s'abstenir?"

질에 따라 명사구 형성의 차이는 전치한 형용사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DE 4 단계는 전치하는 형용사가 명사의 수식요소인 "*de grands chirurgiens*"의 경우로, 이 때 DE는 형용사 *grands*과 함께 '역전소' 역할을 나누어 한다. 한편, "*des* grands généraux"에서 형용사는 명사의 구성요소로 이 때 DE는 형용사와 '역전소' 역할을 나누어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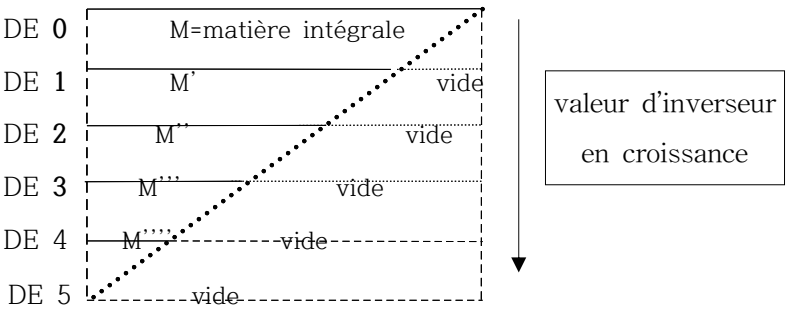
6) DE 5: 부분관사 DE

DE가 의미차감 현상을 통해 완전한 역전소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는 DE 5에서 포착된다. 이 단계에서 DE는 정관사와 결합하여 부분관사를 이룬다. 이 때 정관사와 결합을 하는 DE는 정관사의 일반화 움직임을 저지시키면서 다른 통사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문장의 균형을 이룬다. 그 결과 비로소 DE는 '역전소'로서 완전한 역할에 도달하여 전치사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69) Je bois *du* vin.

예문(69)의 "*du* vin"에서 DE는 정관사 LE와 결합해 셀 수 없는 명사의 일부분(약간)을 의미하는 부분관사로 기능한다. 이 때 총괄적인 의미를 지닌 정관사 LE는 DE와의 결합 후 문장의 한 구성요소로서 후치하는 명사에만 걸림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DE 5 단계의 DE는 문장에서 일종의 관사 역할을 하며, 완전한 '역전소'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DE가 전치사성을 상실하는 의미차감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의 [도표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표17]

[도표17]은 전치사 DE가 의미차감 현상을 통해 전치사성을 상실하는 대신에, 그 공백을 '역전소'의 역할이 채워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DE는 후행지주와의 결합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후행지주와 함께 문장의 한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의 기능은 점점 상실된다. 반면에 '역전소'로서 기능하는 DE는 후행지주의 일반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점 강해져서 DE 5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역전소'가 된다.

4.3. 의미차감과 ENTENDRE

최근 Jacquline Picoche(1986), Thierry Ponchon(2000), Stéphanie Thavaud-Piton(2002)와 같은 소수의 정신역학이론가들은 앞서 살펴본 프랑스어 조동사 avoir와 être, 형태 NE와 DE에서 발생한 의미차감 현상이 어휘차원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어휘차원에서 일어난 의미차감은 어휘의 다의현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본 절에서는 특히 동사 entendre를 선택하여 의미차감 현상과 다의어 현상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4.3.1. 다의성과 다의어

동사 entendre에서 일어나는 의미차감 현상을 살펴보기 전에, '다의성(polysémie)'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의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어휘 *polysémie*는 '여럿'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poly*와 '의미'를 뜻하는 *sem*에서부터 형성된 어휘이다. 그런데 '다의성'은 매우 중요한 언어현상 중의 하나로서, 그 본질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정의해 왔다. 먼저 Michel Bréal(1987)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속성을 특징짓기 위해 *polysémi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는 고유한 의미, 은유적 의미, 확장 의미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휘형태는 같지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다양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의미는 이전의 의미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다의성'을 문명의 진화와 함께 야기된 의미 변형의 결과이며,

무한히 활동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 정신의 법칙에 속한 것으로 파악했다.[51] 한편, Darmesteter는 '언어는 단순 개념들만큼의 용어들을 가지고 있고, 각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창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했다. 그리고 인간 기억력이 모든 단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52] 또한, Cadiot & Habert(1997:3)는 다의성과 관련해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들이 존재하지만 그 의미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한편, '다의성'과 관련해 인지의미론(sémantique cognitive)에서는 전통적인 입장[53]과 달리 다의어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다의성은 '범주화'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인지의미론에서는 '범주화' 개념을 적용해 하나의 어휘를 한 범주로 설정하고, 그 어휘의 다양한 의미들을 그 범주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이 때 범주화란 인간이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분류하거나 무리지어 인지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리킨다. 즉 다양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이나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llerton(1979)은 의미핵 개념을 사용하여 영어의 'paper'란 단어를 분석하였는데, 'paper'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직접 썼거나 인쇄된 중요한 자료(important written or printed material for public use)"라는 의미핵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신문(newspaper)", "서류(document)", "학문적 강의(academic lecture)" 등과 같이 여러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51) Émilie Pauly(2013), *La polysémie*, p.24.
52) "Il semberait que le langage dût posséder autant de termes que d'idée simples, et créer un mot pour chacune d'elles.(...), il donne à un même mot plusieurs significations." (Darmesteter, 1950:37-38)
53) 전통적인 시각의 어휘문법에서는 다의성과 관련해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하였어도 공식적으로 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Taylor (1995:105)는 '의미핵(core mean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핵이 있는 경우는 다의어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다의어는 동음이의어(homonyme) 개념과 구분된다. 즉, 다의어는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한 형태가 가진 서로 다른 개별의미들은 어원적으로 서로 서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faire 동사를 살펴보면 '만들다, 제작하다'라는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시작하여 '창조하다(créer)', '유발시키다(provoquer)', '재배하다(cultiver)', '구성하다(former)', '(새끼를)낳다(engendre)'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언어의 경제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어휘가 그 의미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와 소리를 보이는 어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suis*는 *je suis*처럼 동사 *être*의 현재 단수 1인칭 형태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동사 *suivre* 의 현재 단수 1, 2인칭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어원의 동일성 여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원이 같은 경우에도 파생의미가 기본의미와의 연관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이 어휘를 다의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voler*의 '날다'와 '훔치다'는 의미상 전혀 연관성이 없다. 즉 '훔치다'는 의미 확장 정도가 심하여 '날다'라는 기본의미와 연관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다'를 통해 '훔치다'를 쉽게 연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두 의미를 각각 독립된 어휘로 분류해서 '훔치다'를 의미하는 *voler*는 동음이의어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행위가 '빠르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훔치다'

행위 역시 '빠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의미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를 기본개념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시 말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원이 같은 경우에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사이의 구분에 관하여 사전편찬자 혹은 전산 언어학자와 교수법이론가들의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전산 언어학 관점에서는 가급적 다의어 처리보다는 동음이의어 처리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어휘목록 내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어휘구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계적 처리에 더욱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산 언어학에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통사적 속성 또는 논항수와 논항을 유도하는 전치사의 형태에 의한 구분을 기준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한다. 반면 교수법 관점에서는 형태,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모두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법 영역에서는 교육적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개별의미들을 가급적 하나의 다의어 내에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는 기본의미와의 연관성이 희미한 어떤 개별의미들도 다의어 틀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 종종 용인된다. 이것은 연관성이 희박한 개별의미일지라도 하나의 표제어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54]

54) 박동열(2007), '다의어 Faire의 교수방안', 『프랑스어문교육』, 제24집, p.58.

4.3.2. ENTENDRE의 다의현상

동사 entendre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별의미들을 살펴보고자 우리는 *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1971),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1977), Le Robert(1981),* 『엣센스 불한사전』(1984), 『동아 프라임 불한사전』(1998),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등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그 개별의미들은 크게 다섯 가지 의미영역, 즉 '소리(bruit)의 해석' 영역, '말(parole)의 해석' 영역, '이해(compréhension)'의 영역, '의사(dessein)'의 영역, '의지(volonté)'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소리(bruit)의 해석' 영역

첫 번째 의미영역은 '소리(bruit)의 해석'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 entendre의 주체는 오로지 청각에 의지해 소리를 지각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주체가 그 소리를 분석하거나 이해하려는 자율의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72) J'entends du bruit.
(73) J'entends une voiture.
(74) J'entends une voiture passer.

위 예문에서 entendre는 주어인 '내(je)'가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 물리적인 소리를 지각하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해 쓰였다. 위 예문이 보여주는 문형구조는 <N_1+V+N_2>와 <N_1+V_1+N_2+V_2>이다.

2) '말(parole)의 해석' 영역

두 번째 의미영역은 '말(parole)의 해석' 영역으로, entendre의 주체는 자신의 청각을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성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지한다. 다시 말해서 듣는 행위에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경우이다.

(75) Que le ciel vous entende!
(76) Le juge a entendu le témoin.
(77) J'entends parler de Jean.

예문(75)는 하늘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람의 말하는 바, 즉 바람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 바람에 대한 회답을 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나타낸다. 또, (76)에서 entendre는 판사가 증인의 물리적인 소리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증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 entendre는 (77)의 예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entendre는 "*J'ai entendu dire que~*", "*J'ai entedu parler de~*"와 같이 보통 복합과거형으로 많이 쓰인다. '말'의 해석 영역에 해당하는 entendre는 일반적으로 <N_1+V_1+N_2>구문 유형으로 나타난다.

3) ‘이해(compréhension)’의 영역

다음으로 세 번째 의미 유형은 ‘이해(compréhension)’의 영역이다. 이 때 entendre는 주체가 청각이나 지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소리를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理解)하는 차원까지 나아간다.

(78) Comment entendez-vous cette phrase?
(79) Ils s’entendent à demi-mot.
(80) Ce proverbe peut s’entendre de diverses manières.

예문(78)에서 entendre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문장(cette phrase)’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사용됐다. 이 경우 entendre는 *‘comprendre, saisir’*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79)와 (80)에서 대명동사로 쓰인 s’entendre는 <그들은 몇 마디 말로도 서로 이해한다>, <이 속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로 해석된다. 이해의 영역에서 entendre는 $<N_1+V_1+(N_2)>$나 대명동사 구문으로 나타난다.

4) ‘의사(dessein)’의 영역

네 번째 의미영역은 ‘의사(dessein)’의 영역으로서 이 때 entendre는 단순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포함한 의미를 나타낸다.

(81) Ils s’entendent bien.
(82) Ils s’entendent comme larrons en foire.

(83) C'est entendu.

예문(81)은 그들은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지내려는 의사를 함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들은 매우 친하다>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entnedre의 주체들이 서로를 이해하여 실제적으로 잘 지낸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82)는 숙어적 표현으로, <그들은 나쁜 일을 하는데 놀랍도록 뜻이 맞다.>로 해석된다. (83)은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알겠다>라는 의미로 단순 이해작용의 개념 뿐 아니라 이해한 것에 대한 실천의 의지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주체의 의지가 더해진 '의사'의 영역은 보통 복수명사를 주어로 하고, 대명동사를 사용하거나 (83)과 같이 수동 구문으로 나타난다.

5) '의지(volonté)'의 영역

마지막 의미영역은 '의지(volonté)'의 영역으로, 주어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의 개입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 의미영역에서 entendre는 청각이나 지성에 의한 지각 또는 이해의 의미는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목적어에 해당하는 사실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 혹은 욕망을 나타낸다. 즉, 이 경우 entendre는 '*vouloir, exiger, désirer*'와 같은 의미가치를 지닌다.

(84) J'entends faire des réformes.
(85) J'entends qu'on m'obéisse.

위 예문은 각각 <나는 개혁하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길 원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예문(85)와 같이 entendre 동사 다음에 que절이 오는 경우 종속절에 접속법을 사용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앞서 살펴본 entendre의 개별의미들이 나타나는 문장들의 구문과 사전에 나온 것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 도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사 entendre의 의미들은 기능에 따라서 일반동사[55], 대명동사[56], 숙어동사[57]의 구문 유형으로 나뉜다.

---

55) 일반동사 구문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두 가지 구문으로 구분된다. entendre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타동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몇몇 사전에서는 간접타동사로 추가 구분하기도 한다. entendre의 간접타동사구문의 경우, 승낙하다(acquiescer), 동의하다(consentir)의 의미를 지니며, 전치사 à와 함께 목적어를 수반한다.

56) 전통문법에서는 대명동사 구문을 다의성을 갖는 se의 의미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 했는데, 동사 entendre의 대명동사 구문도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① 재귀적 대명동사: Tu ne t'entends pas!
② 상호적 대명동사: Ils s'entendent bien.
③ 자동사적 대명동사: Elle s'y entend, pour cuisiner!
④ 수동적 대명동사: Ce mot peut s'entendre de diverses maniè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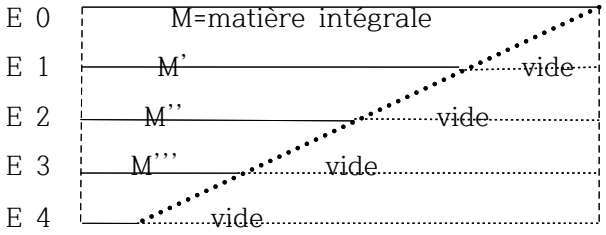
57) 숙어동사는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이 전체로 굳어진 하나의 결합체로서 서술어와 결합되는 논항의 분포가 완전히 제약되어서 다른 논항과 거의 교체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구문을 이룬다. 또한, 숙어동사의 의미는 의미적으로 불투명하나,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표현들을 분석할 때는 동일한 표현이 논자에 따라 숙어동사 구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구문 유형	용법
일반동사구문	N_1+V+N_2	(72) J'entends du bruit. (73) J'entends une voiture. (76) Que le ciel vous entende! (78) Comment entendez-vous cette phrase?
	N_1+V_1+N_2+V_2	(74) J'entends une voiture passer.
	N_1+V_1+V_2+N_2	(84) J'entends faire des réformes.
	N_1+V_1+V_2+Prép.+N_2	(77) J'entends parler de Jean.
	N_1+V+Prép.+N_2	(86) Les uns disent que j'ai bien fait d'entendre à un arrangement.
대명동사구문	(79) Ils s'entendent à demi-mot. (81) Ils s'entendent bien. (87) Cela s'entend !	
숙어동사구문	N_1+V+N_2	(88) Il entend la plaisanterie.
	N_1+V_0+N_2+V_1	(89) J'entends les mouches voler.
	N+V_1+V_2	(90) Il fait entendre.
	N+V.pron	(82) Ils s'entendent comme larrons en foire.

[도표18]

4.3.3. ENTENDRE와 의미차감

이제 우리는 동사 entendre의 '듣다'라는 본래 의미가 가득 찬 단계의 포착을 E 0이라 설정하고 의미차감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차감의 개념을 적용해 entendre의 의미차감 단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19]

[도표19]에 나타나듯이 entendre의 의미차감의 경우, E 0 ~ E 4의 의미차감 단계가 발생한다. 이 때 entendre의 기본 의미가 빠져 나간 빈자리(vide)는 주체의 의지가 채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계에 따라 점점 강해진다. 이러한 의미차감의 결과 entendre가 다양한 의미효과를 가지며 다의동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entendre의 의미차감 단계는 다음과 같이 앞서 살펴본 entendre의 다섯 가지 의미영역으로 설명가능하다.

1) E 0: '소리(bruit)의 해석' 영역

첫 번째 의미차감 단계 E 0는 앞서 살펴 본 '소리의 해석' 영역에 해당하며, entendre의 '듣다'라는 기본의미가 가득 찬 상태이다. 이때 주체의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목적어로 오는 대상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72) J'entends du bruit.
(73) J'entends une voiture.

예문(72), (73)에서 entendre의 주체는 의지를 가지고 목적어가 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능력에 의존해 자연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지각한다.

2) E 1: '말(parole)의 해석' 영역

두 번째 의미차감의 단계 E 1은 entendre의 기본 의미가 조금 빠져나간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본래의 의미가 빠져나간 빈자리는 '지성'이라는 인지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주체가 의지가 첫째 단계보다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76) Le juge a entendu le témoin.
(77) J'entends parler de Jean.

예문(76)에서 판사는 증인의 말을 들리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라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들은 것이다. 예문(77)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듣다'라는 행위에 주어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E 2: '이해(compréhension)' 영역

의미차감이 한 단계 더 이루어지면 E 2단계로, 본래의 '듣다'의 의미가 더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따라서 그 결과 빈자리가 더 커지는데,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해(compréhension), 즉 지성의 인지작용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듣는 행위를

하는 데서 나아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78) Comment entendez-vous cette phrase?
(79) Ils s'entendent à demi-mot.

위 예문에서 entendre는 본래의 '듣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청각적 지각보다는 '이해'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문(78)은 목적어로 온 '이 문장(cette phrase)'에 대한 이해, (79)는 그들은 다 듣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주체의 의지가 이전 단계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E 3: '의사(dessein)'의 영역

다음 단계인 E 3는 '의사'의 영역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부터는 본래 의미 '듣다'는 거의 다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entendre는 무엇인가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데, 이 때 주체의 의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의지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보긴 힘들다.

(82) Ils s'entendent comme larrons en foire.
(83) C'est entendu.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문(82)에서 entendre는 대명동사로 쓰여 주체들의 상호간 이해와 함께 잘 지내고자 하는 의사까지 포함한 의미로 해석이 되며, (83)은 이미 언급된 어떠한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을 이행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entendre는 앞선 단계보다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주체만의 자율적인 의지라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볼 순 없다.

5) E 4: '의지(vonlonté)'의 영역

Entendre의 의미차감 마지막 단계인 E 4는 '의지'의 영역으로 주체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본래의 '듣다'라는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그 빈자리는 주체의 의지, 욕망으로 가득 찬다.

(84) J'entends faire des réformes.
(85) J'entends qu'on m'obéisse.

위 예문에서 entendre는 최초의 '듣다'의 의미를 모두 상실하고, 주체가 의지가 강하게 채워짐으로써 '원하다', '요구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개혁을 하는 것'이나 '내게 복종하는 것'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사 entendre는 '소리의 해석', '말의 해석', '이해', '의사', '의지' 등 의미차감의 다섯 단계를 통해 여러 의미를 획득해 다의동사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정신역학이론의 핵심적인 언어분석 도구 중 하나인 '의미차감' 개념을 조명하고, 이 개념이 언어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선택한 연구주제인 '의미차감'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정신역학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기본 원리를 살펴보는 일이고, 후반부는 '의미차감'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정신역학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들인 잠재언어와 담화, 근원적 이원장력, 작용시간, 잠재의미와 실현의미, 단어체계론, 걸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이 모든 기본 개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의미차감'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원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정신역학이론의 기본원리를 소개하는 부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의미차감'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현상에 적용하는 데에 꼭 설명되어야 할 원리들이기 때문에 다소 많은 분량을 부여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만큼 정신역학이론이 고유한 이론적 분석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Ⅲ장에서 '의미차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프랑스어 동사 avoir와 être를 통해 '의미차감'이 어떤 원리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았으며, 일반 '어휘동사'가 '조동사'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조동사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동사 형성과정의 원리는 비단 프랑스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나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조동사화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의 연구는 '의미차감' 개념이 다양한 언어형태의 분석과 다의어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첫째는 형태 NE가 완전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에서 서서히 부정의 의미가 빠져나가, NE-PAS 구문, NE-QUE 구문, 허사 NE의 차례로 '의미차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형태 DE의 경우도 '의미차감'을 통해 고유의 의미인 전치사의 기능을 벗어나 '탈전치사' 또는 '역전소'로 전환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동사 ENTENDRE를 선택하여 다의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의미차감' 현상에 의해서임을 밝힘으로써, 정신역학이론이 충분히 '어휘의미론'의 연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 동안 문법구조의 의미적 분석차원에 머물렀던 정신역학이론의 연구가 '어휘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의미차감'이 정신역학이론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미차감' 현상을 통해 단어가 자신의 의미를 잃음으로써 다양한 형태적 변화와 의미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언어현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의미차감' 개념은 어떤 어휘가 문법적 요소로 변화하는 문법화(grammaticalisation) 현상이나 보편적인 언어현상 중 하나인 다의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개의 언어형태에 '의미차감'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의미차감'은 거의 모든 문법어, 어휘어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어휘 차원에서나 그 이상의 차원에서나 다의현상은 늘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다양한 '의미차감'의 사례를 분석하는 일과 다양한 다의현상을 연구하는 일이 차후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Bibliographie

<해외서적>

Benveniste, É. (1966)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Paris: Gallimard.

(1974)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Paris: Gallimard.

Bréal, M. (1981) *Essai de sémantique*, Pari: Hachette.

Brunot, B. (1965) *La pensée et la langue*, Paris: Masson et C^{IE}.

Gougenheim, G. (1959) Y-a-t-il des prépositions vides en français?, Le français moderne.

Guillaume, G. (2006) *Carnets d'un linguiste*, Comp'act.

(1992)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Vol.12, Québec-Lille,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84)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Québec: Nizet-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82)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Vol.5 Québec-Lille,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74)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Vol.4, Paris-Québec: Klincksieck-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Vol.3, Québec: Klincksieck-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71)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Vol.1, Paris-Québec: Klincksieck-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1929) *Temps et Verbe*, Paris: Champion.

(1919)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Hachette.

Grévisse, M. (1957) Précis de Grammaire Française, Gembloux: Duculot.

Joly, A. et O'Kelly, D. (1990) *Grammaire de l'anglais systématique,* Paris: Nathan.

Joly, A., Hirtile, W.H. (1980) *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Presses de l'université Laval-Québec.

Lyons, J. (1990) *Sémantique linguistique*, Paris:Larousse.

Martin, R. (1992) *Pour une logique du sens,*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Moigent, G. (1981)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Klincksieck.

Monneret, P. (2013) *Le sens du signifiant*, Paris:Honoré champion.

Picoche, J. (1986) *Structures sémantiques du lexique français*, Paris, Nathan.

Pottier, B. (2001) *Représentation mentales et catégorisations linguistiques,* Belgium: Peeters.

Valin, R.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Paris: Klincksieck.

<해외학술지>

Cornillac, G. (2010) « Gustave Guillaume: une vie, une oeuvre », Langages, Paris: Larousse, p.11-20.

Comorere, S. (1998) « Gustave Guillaume, Maurice Molho et la théorie de l'auxiliaire », Les chemins du texte, p.40-47.

Hewson, J. (2013) « Gustave Guillaume, Leçons de linguistique », Folia linguistica historica, Allemagne:Mouton, p.255-261.

Soutet, O. (2003) « Tenseur binaire radical et la question de la plolysémie lexicale en psychomécanique du langage: le cas du verbe entendre », Italie: Quaderni del CIRSIL.

<기타>

Ponchon, T. (2000) « Les valeurs de l'adverbe 'bien' en français médiéval », in acte du colloque: La polysémie, en Sorbonne.

Thavaud-Piton, S. (2002) « Sémantique lexicale et sychomécanique guillaumienne», Thèse, Universitré Paris Ⅳ.

<국내서적>

박옥줄 et al.(1992) 『불어학개론』, 과학사.

박옥줄(1995) 『불문의 구조(上)』, 서울대학교 출판부.
『불문의 구조(下)』,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옥줄 외.(1969) 『Gramm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성문각.

이광호(2009) 『의미분석론, 역락』, p.336-334.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국내학술지>

김지은(1985) '낱말 "DE"의 정신메카니즘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11집, p.109-123.

박동열(2010) '정신역학이론과 인지문법-인지 연구 관점에서의

정신역학이론', 『프랑스어문교육』 제33집, p.229-260.

(2008) '허사 NE에 관한 연구-역사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NE의 정신역학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28집, p.217-240.

(2007) '다의어 faire의 교수방안', 『프랑스어문교육』 제24집, p.51-76.

(2006) '정신활동과 언어학적 구조-개념화를 위한 정신역학모델', 『프랑스어문교육』 제23집, p.239-372.

(2005) '시제교육과 정신역학이론의 시제체계', 『프랑스어문교육』 제20집, p.37-59.

윤석만(2003) '원형이론과 언어의미', 『언어와 언어학』 제31집, p.95-114.

(1999) 'L'énonciation et la conceptulisation', 『외국어교육연구』 제13집, p.127-159.

이승대(1994) '전치사 de의 내재성과 초월성',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5집 3호, p.35-48.

<사전>

Dictionnaire du français, E ROBERT &CLE, 2009, LE ROBERT.

Dictionnaire du français, osette Rey-Debove, 1999, Le Robert.

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1971, Larousse.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 Louis Guillbet, 1977, Libraire Larousse.

Le bon usage, Maurice Grevisse, 1955, J.Duculot.

LeRobert, Robert, 1981, LE ROBERT.

Le Petit Robert, 1989, LE ROBERT.

Nouveau dictionnaire étymologique, 1971, A.Dauzet et al., Larousse.

The Pocket Oxford-Hachette French Dictionary, Marianne Chalemers&Martine Pierquin,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네이버 프랑스어사전 http://frdic.naver.com/

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정지영· 홍재성 et al, 1998, 두산동아.

엣센스 불한사전, 이휘영편, 1984, 민중서림.

Résumé

Étude sur l'idée « Subduction » de la psychomécanique

KIM SoJeong

Cette étude a pour but d'éclairer sur l'idée « Subduction » de la psychomécanique que Gustave Guillaume, liguiste français, a présenté dans sa théorie de psychomécanique et de rechercher comment elle opére dans la langue.

La Subduction est l'opération de dématérialisation et de désémantisation des mots. Elle est distinguée de deux moments caractéristiques dans la production de la subduction: dans un premier temps, la subduction est *exotérique*, c'est-à-dire extérieure, non cachée dans le mot. Elle hiérarchise les mots dans une « chronologie notionnelle ». Par conséquent, les verbes *être* et *avoir* sont naturellement « subductifs »: ils préexistent idéellement aux autres verbes. Il faut, par example, « d'abord » *être* pour *pouvoir* « ensuite » *se mouvoir, aller, venir, marcher, manger*, etc. Dans un deuxième temps, la subduction est *ésotérique*, c'est-à-dire intérieure, cachée dans le mot. Les mots perdent leur sens plein pour « descendre » en dessous de leurs sens moins subductifs. Ainsi, les verbes *être* et *avoir* cessent de

signifier, respectivement, « exister » et « posséder » lorsqu'ils sont en position d'auxiliaire. Dans notre étude, nous analysons les mots suivant la subduction ésotérique pour voir comment les mots ont des sens variés comme les mots polysémiques.

Avant de traiter des différents aspects de la subduction, nous examinons les théories fondamentales de Gustave Guillaume: langue et discours, tenseur binaire radical, temps opératif, signifé de puissance et signifié d'effet, systématique du mot, et incidence. Ensuite nous épuisons la notion de subduction avec *avoir* et *être* en analysant le procès de verbes lexiclales à verbes auxilliaires dans le troisième chapitre.

Dans le quatrième chapitre, nous choisissons les mots NE, DE, et ENTENDRE pour démontrer que la subduction peut être appliqué à l'analyse formelle d'un langage et la polysémie. Tout abord, nous examinons le procès de subduction pour le mot NE: du sens negatif plein au sens explétif. Ensuite le mot DE de la préposition DE au inverseur DE. Enfin nous analysons le procès de la subduction pour le verbe Entendre qui acquiert la polysémie au résultat.

Pour conclure, nous abordons que la « subduction » est une des l'idées centrales de la psychomécanique pour comprendre le principe fondamental. Nous avons mis au point la conception générale et quelques cas spécifiques en nous faisant comprendre sur l'idée « subduction ».

Nous expérons que cette étude apportera une contribution aux

études ultérieures pas seulement sur la psychomécanique mais aussi sur la sémantique lexicale.

Mots-clés : psychomécanique, subduction esotérique, subduction exotérique, polysémie, désémantisation.

N°étudiant : 2010-23568